인트로

안녕하세요. 이창희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다니엘 강의를 6주간 진행하게 됩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다니엘서의 개관과 1장부터 2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려합니다. 강의를 통하여 우리의 삶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는 시간되길 소망합니다. 그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다니엘서는?

신약의 마지막에 기록된 책이 뭐죠? 요한계시록입니다. 신약에 계시록이 있지만, 구약에서도 계시록이란 별명을 갖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는 그만큼 어려운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만 이 다니엘서는 에스겔서와 같이 신약의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다니엘서는 총 1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부분으로 나누면 1~6장, 7~12장으로 나뉩니다. 앞에 1장부터 6장까지는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7장부터는 난해한 묵시적인 표현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잠깐 묵시는 뭘까요? '숨은 것을 드러낸다', '덮개를 벗긴다'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감추셨던 자신의 뜻을 성령을 통해 알려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계시와 같은 의미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계시는 우리를 구원하는 차원에서 내려지는 것이라면 묵시는 세상의 종말에 대해 이야기 합니다.

이 다니엘서는 역사적인 배경을 모르고 읽다보면 그 내용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 깊게 공부해보면 1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보다 더 흥미진진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다니엘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맥을 이해하려면 알아야할 다섯 제국이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배경이 되어 애굽을 무너뜨린 앗수르 제국입니다.
앗수르는 다니엘서의 시대적 배경이 되는 바벨론에 의해 무너지고, 바벨론 제국은 세계 가운데 새로운 강자로 떠오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영원한 나라가 없듯이 바벨론은 메데 페르시아 제국에게 점령을 당합니다. 그리고 메대 바사는 알렉산더가 이끄는 헬라 제국에게 정복당합니다. 그리고 헬라에 이어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로마제국이 세계를 차지합니다. 이 다섯 제국! 앗수르, 바벨론, 메대 페르시아, 헬라, 로마가 성경 전체의 시대적 배경이 되는데요. 이러한 역사적 흐름을 기억하면서 성경을 읽다보면 입체적으로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섯 제국의 흥망성쇠를 보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강의의 주제가 뭐였죠? '하나님의 주권 찾기'입니다. 모든 역사의 중심에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있다는 것이죠. 한 제국이 떠오르고 또 한 제국이 사라지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바로 인류의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인 섭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다니엘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 초점을 두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백성을 다루시는 분명하고도 특별한 양육 방법이 있습니다.
“내 말에 순종하며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불순종한 백성들을 여러 가지 징벌로 다루십니다. 그중 가장 고통스럽고 비참한 징벌은 선택하신 민족을 다른 나라에 보내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을 다른 나라의 속국으로 만드시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다른 나라의 속국으로 만드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민족은 한꺼번에 포로로 잡혀 가지 않고, 시간의 차이를 두고 끌려갔습니다. 가정 먼저 혈통이 우수한 왕, 고위직의 후손, 사회의 지식층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붙잡혀 가기 8년 전입니다. 귀족의 혈통을 지닌 다니엘도 이 그룹에 속해 8년에 앞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포로로 먼저 끌려가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섬세한 섭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상황이라면 불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불평하게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지 못하죠. 하지만 시련 속에서 조금씩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에 고난의 상황에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선하시며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든 함부로 단정 짓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쉽게 평가하지도 않죠. 우리의 신생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평가는 참고의 대상이지 절대적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평가가 우리의 가치나 삶의 방향을 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이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먼저 바벨론 땅에 보내신 이유를 살펴보면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 이방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한때 영화를 누리던 앗수르가 무너지면서 바벨론은 세계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최고의 절정기를 누리던 시기입니다. 이 바벨론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십니다.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시고,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다니엘을 비롯한 어린 소년들의 신앙을 통해 이방 땅 바벨론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렇게 바벨론이 아닌 하나님이 역사의 중심임을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사건들이 종결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 일을 겪었던 다니엘과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는 포로로 끌려가는 자신의 상황을 쉽게 납득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택하신 백성을 이방 땅의 포로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훗날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당시의 아픔이 지금의 유익이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먼저 보내신 이유 두 번째는, 훗날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끌려올 것을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속 깊은 배려라 할 수 있는데요, 요셉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요셉이 먼저 애굽에 팔려 가지 않았더라면 애굽은 어떻게 기근에 대처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의 가족들은 어떻게 기근 속에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결코 앞날을 알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미래를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먼저 보내신 이유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시아를 열망하는 마음을 주시고자 함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의 지배 가운데 놓으신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바벨론에서 구원해줄 메시아의 손길을 갈망합니다. 그제야 비로소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죠. 다시 말해 고난의 시간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결코 메시야를 기대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곧 역사다

다니엘서 1장 1절보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삼 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말씀에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을 통치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을 근거해 볼 때, 이때는 느부갓네살의 아버지인 나보폴라산 왕의 통치시기 입니다. 성경 기자가 아직 왕위에 오르지 않은 느부갓네살을 왕으로 기록한 이유는 유다 민족이 바벨론에게 함락된 당시 바벨론을 통치하던 왕이 바로 느부갓네살이었기 때문입니다.
1절에 보면 '유다'왕이 등장합니다. 유다는 이스라엘이 나뉘면서 생긴 나라로 이스라엘의 초대왕은 누구였죠? 사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이 그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답게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점점 많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아 우상문화를 받아 들였습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의 민족적 정체성이 약해지고, 점점 나라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나뉘게 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뉩니다. .

1절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이 등장합니다. 여호야김은 개혁을 했던 아버지 요시야, 그리고 막내 동생 여호아하스에 이어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우상숭배를 척결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유다 왕국을 통치했습니다. 그러다가 앗수르를 치러가던 애굽왕 느고에 맞서다 므깃도 전투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요시야 왕이 죽자, 백성들은 요시야 왕의 네 아들 중 막내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여호아하스는 그의 아버지와 정 반대로 짧은 기간에도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악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애굽의 바로 느고에 의해 3개월 만에 왕위를 빼앗기고 애굽으로 사로잡혀 갑니다.
애굽의 왕 느고는 요시야의 둘째 아들이었던 엘리아김을 유다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여

호야김으로 고칩니다. 사실상 애굽의 허수아비와 같은 왕이 된것이죠. 여호야김은 애굽의 명령을 충실하게 따랐으며, 그의 동생과 마찬가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애굽이 유다를 지배하던 이 혼란한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바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민족을 향해 “이러다 유다는 망할 것이다. 유다 민족은 곧 바벨론에 포로로 붙들려 갈 것이다”라고 경고하였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길 선포했습니다. 왕의 입장에서 이런 예레미야의 질책을 듣기 좋아했을까요? 아무래도 불편했겟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여호야김은 말씀이 담긴 두루마리를 칼로 갈기갈기 찢어서 화롯불에 태워 버렸습니다. 성경을 태우는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난폭한 그의 행동을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예레미야를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통치하는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왕궁을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여호야김의 손에서 보호해 주시고, 불태워진 말씀을 예레미야로 하여금 다시 쓰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세운 왕궁은 곧 바벨론에게 침략당하고 맙니다. 예레미야가 경고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바벨론의 왕이 바로 느부갓네살입니다.

다니엘서 1:2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바벨론은 유다를 침공하여 유다 민족만 포로로 끌고 간 것이 아니라 유다의 모든 보물을 바벨론으로 옮겨 갑니다. 이 모든 행동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 의한 것이겠죠? 그런데 성경을 잘 살펴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2절의 첫 구절을 주목해보세요. “주께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에서 딱 한 번 나오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주께서’는 히브리어로‘아도나이’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와 주권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모든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죠.
하나의 거대한 제국이 세워지고, 또 사라지는 일은 결코 그 나라의 힘이 강하거나 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만물을 운행하시며 역사를 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뜻을 정한 주님의 자녀들

다니엘서 1~6장은 다섯 개의 사건이 주를 이룹니다.
그중 첫 번째가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의 음식을 거절한 사건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포로로 끌려온 소년 가운데 바벨론의 인재가 될 만한 자질이 보이는 몇 명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을 가르치고,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게 하죠. 그런데 그중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음식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그들의 총책임자인 환관장이 찾아와 다음과 부탁합니다.
자신이 왕을 두려워하며, 너희들의 얼굴이 초췌해지면 왕 앞에서 내가 위태롭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자 다니엘은 열흘 동안 시간을 주어 왕의 음식이 아닌 채식을 할테니 다른 소년들과 비교해서 누구의 얼굴빛이 좋은지 한 번 지켜봐달라 합니다.

다니엘의 이 제안은 단순한 용기를 가지고서는 할 수 없는 제안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의 결말을 알기에 어쩌면 다니엘이 처한 상황에서 그가 뜻을 정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처한 고난의 자리를 한 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와 저마다 살아남기 위해 얼마나 치열한 경쟁을 했겠습니까? 누군가 올라서면 누군가는 내려와야만 하는 냉정한 궁궐의 현실 속에서 서로 눈치를 보며 미묘한 신경전을 펼쳤을 것입니다.
뜻을 정한다는 것은 '가장 좋은 가치를 지키키 위해서 나머지 것을 내려놓는다'는 의미입니다. 저희 가정은 마트에 가기보다는 어플을 이용하여 장을 많이 봅니다. 일단 장바구니에 살만한 것들을 모아놓습니다. 그런다음 목록을 쭈욱 보면서 필요하지 않다는 것들은 과감하게 삭제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물건만을 구입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활에도 보면 더 나은 것을 위해 그렇지 않는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다니엘의 입장에서 보면 그가 뜻을 정했을 때 두려운 마음으로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는 지금 궁궐의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궁궐 안에 모인 소년들은 정말 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왕의 음식을 거절한다는 것은 그가 누릴 수 있는 많은 혜택을 포기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피해를 감수하겠다는 뜻이기도 하죠.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가 할 길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당시 바벨론 시대에는 왕의 음식을 차릴 때 반드시 그들이 섬기던 제단에 바쳐진 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음식을 먹는 다는 것은 그 음식이 바쳐졌던 우상의 보호 아래 자신을 맡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음식을 단호히 거절한 것입니다. 신앙의 문제가 걸려 있기에 왕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다니엘 1:7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바벨론 제국은 포로로 붙잡아 온 다니엘의 이름을 '벨드사살'로 개명시켰습니다. 원래 다니엘이란 이름은 '하나님은 심판의 주'라는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신'이라는 뜻의 '벨드사살'로 이름을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한 번도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다니엘이라는 자신의 이름을 강조합니다.

이것을 통해 다니엘이 얼마나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니엘은 늘 심판의 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바벨론이 섬기는 우상(벨드사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역사의 주인(다니엘) 이심을 믿었습니다.
그 이름처럼 하나님만이 '유일한 심판의 주 이시다'라는 확고한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갔습니다. 다니엘은 이름의 신앙대로 살아간 사람입니다.

다니엘 1:11~12
11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12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성경주석가 중에 랑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2절의 '청하오니'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다니엘은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겸허한 태도로 환관장에게 요청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다니엘의 성품과 신앙을 엿볼 수 있다. 이에 반해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생각하는 진리만을 절대적으로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방에게 무례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그의 지적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고 주장하며 무례히 행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오죽하면 무례한 기독교라는 제목의 책이 나왔을까요? 무례함은 대단히 잘못된 태도입니다. 다니엘이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 취했던 겸손함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열흘이 지난 뒤 하나님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셨나요?
다니엘 1:15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하나님은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채식만 먹기로 뜻을 정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들이 채식을 했기 때문에 얼굴빛이 더욱 아름답고 더욱 윤택해졌다고 오해하며 안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얼굴을 해처럼 빛나게 하신 것이죠.

위기의 순간에

다니엘서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니엘 2:1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이 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한 나라의 왕이 되면 권력이 주어짐과 동시에 그에 따른 무게감과 부담감이 밀려옵니다. 장차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염려도 분명히 있겠죠? 느부갓네살 왕도 그런 염려와 고민으로 뒤척이다 꿈을 꾸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꾼 꿈의 내용을 잊어버린 겁니다. 꿈을 꾼 뒤 뭔가 기분이 좋지 않다는 느낌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 술객 등을 불러 모읍니다. 시국이 불안하고 정권이 안정되지 않을수록 이런 무속 신앙을 찾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권력으로 백성들을 탄압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내면에 감춰진 불안과 염려까지 어찌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불러 모은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에게 자신의 꿈을 해석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꿈을 해석하면 상을 주지만, 해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목숨을 잃을 것이라 말합니다.

생각해 보면 정말 말이 안되는 명령입니다. 어떤 꿈을 꾸었는지도 모른데 어떻게 그 꿈을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14절에 보면,
그 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다니엘이 왕의 근위대장에게 말을 건냅니다. 다니엘은 내면이 잘 훈련되어 있는 명철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도 그 부분을 정확히 짚어내는데 여기서 '명철'은 '침착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견고하기에 다니엘은 위기 속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하루 아침에 명철함을 갖게 된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뒤에도 그는 하루에 세 번씩 철저히 경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날마다 경건 훈련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를 쌓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경건 훈련을 철저하게 해온 그에게 한 나라의 역사를 경영하는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느부갓네살 꿈에 나타난 신상

다니엘은 하나님에게 붙들린 자, 소명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는 내면이 잘 훈련된 명철한 청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잠잠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립니다. 얼마 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통하여 느부갓네살의 꿈을 알아냅니다. 한 큰 신상을 보았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여 모양이 심히 두려웠습니다. 머리는 순금, 가슴과 두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 종아리는 쇠 그리고 발은 쇠와 진흙이 섞여 있습니다. 그때 왕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 발을 쳐 부서뜨리니 그 형체가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한 신상이 있었는데 각 부위가 다릅니다. 이 각 부위는 각기 다른 나라를 뜻합니다.

먼저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금으로 된 머리는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이사야에서는 바벨론을 표현하길 '황금의 도시'라 했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의 문화와 웅장함을 보면 황금이라 비유될 만큼 찬란하고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바벨론의 공중정원을 볼 수 있습니다. 비가 잘 오지 않는 바벨론에 커다란 물탱크를 만들어 강의 물을 끌어오는 기술력도 갖고 있었습니다. 또한 바벨론의 성의 규모도 대단이 컸습니다. 네겹의 성벽을 이루며, 성 밖으로는 유프라테스 강이 흘러 적의 침입에 대비하였습니다. 감히 어느 누구도 바벨론 도성을 공격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벨론은 금이 많았습니다. 22,500kg이나 되는 황금상과 식탁이 있었습니다. 문화와 유적뿐만 아니라 금도 많은 나라가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바벨론도 다음 나라에 망하게 됩니다. 바벨론보다 못한 나라에게 망하게 되는데요. 금보다 못한 은의 나라, 신상의 두팔과 가슴인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국에 패배하게 됩니다. 확실히 메대와 페르시아는 바벨론보다는 약했습니다. 하지만 메대와 페르시아는 은이 많고, 이들은 역사상 최초로 은화폐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세금을 걷어들이

고 시장경제가 활발해져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메대와 페르시아는 약 200년동안 지속됩니다.

은 다음으로는 놋의 나라가 등장합니다. 페르시아의 25만 군대와 알렉산더가 이끄는 그리스 4만 7천명의 군대가 전쟁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알렉산더가 승리하게 됩니다. 결국 메대 페르시아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큰 신상의 배와 넓적다리인 그리스 헬라제국이 등장하게 되죠. 그리스 헬라제국은 구리를 잘 제련하여 놋으로된 투구와 방패, 검 등을 잘 사용했습니다. 또한 헬레니즘 문명을 만들어 많은 나라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스 헬라 제국 다음으로 철의 나라 로마제국이 등장합니다. 신상의 종아리 부분인 로마제국은 철과 같은 강한 군사력으로 세계를 재패합니다. 이들을 표현하길 '로마사람들은 마치 무장할 준비를 하고 태어난것처럼 보인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로마의 군사력은 매우 탁월했습니다. 로마의 군단제도는 오늘날의 군대조직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강력한 군사력으로 다니엘이 예언한 것처럼 다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찧습니다. 하지만 철의 제국도 멸망하게 됩니다.

북방의 게르만 민족이 이동하면서 이 철의 제국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진흙과 쇠로 섞여있는 여러나라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서로 연합하지 못하고 어떤 나라들은 철과 같이 강대국이 되기도 하고 어떤 나라들은 약소국이 되기도 합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 독일의 히틀러에 의해 유럽이 통일 되는가 싶었지만 결국 이들도 실패합니다.

느부갓네살 꿈 마지막에는 왕이 손대지한 돌이 나와 신상을 무너뜨립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장래에 이루실 일을 알려주신 것이죠. 인간의 제국들은 돌에 의해 깨어지게 됩니다. 이 돌은 인간이 든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이 돌은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신상을 깨뜨린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 꿈을 해석한 후 느부갓네살 왕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그렇게 이방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집니다.

꿈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싶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에는 영원한 나라가 없음을 말씀해주십니다.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토록 강대국이었던 로마제국도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이 땅의 나라들도 보면 힘이 있던 시기가 있고 힘이 약했던 시기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최종 승리자가 누구임을 알려주십니다.
꿈에 큰 신상이 있었는데 왕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 발을 쳐 부서뜨립니다. 여기서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구원의 반석이시며 교회의 머리되신 예수님께서 역사의 최후 승

리자가 되신 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옷이며 가구며 헤어스타일도 유행에 따라 변하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십니다.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를 향하여 손 내미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나라를 위해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주님이심을 기억하고 영원한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니엘서 강의 2강

<1-인트로>

안녕하세요. 이창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찾기 2강으로 다니엘서 3장과 4장의 내용을 살펴보려 합니다. 강의를 들으신 후 꼭 출석체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강의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2-하나님을 찬양하던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계시를 대변하는 다니엘의 지혜를 높이 샀습니다. 그리고 그를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의 리더로 삼죠. 이는 곧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과 그분의 심판적 메시지를 인정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다니엘 2장을 통하여 바벨론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신 마르둑보다 여호와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옆면촬영)

바벨론은 원래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벨' 또는 '마루둑'이란 신을 섬겼습니다. '태양의 아들'이란 뜻으로 '신들의 왕'으로 불리며 오랫동안 숭배했습니다. 이들도 창조 신화가 있었는데요.
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티아마트'라는 신이 다른 신들을 죽였습니다. 이에 마루둑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티아메트를 죽이고 그 시체로 천지를 창조했다고 내려져 옵니다. 우주를 창조하고 신들의 거처를 지어주며 병을 치료하는 등 여러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50개나 되는 칭호를 갖고 있습니다.

(정면촬영)

이 마루둑을 섬기던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꿈 해석을 통해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3장에 와서 갑자기 느부갓네살의 태도가 바뀝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던 그가 금 신상을 세우는 일에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2장과 3장 사이에 무슨일이 있어서 그의 마음이 바뀐 것일까요?
느부갓네살은 감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씀에 기초한 신앙이 아니라 감정에 근거한 신앙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든 왕 중의 왕이라고 찬양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금 신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절하라는 명령을 백성에게 한 것입니다.

3장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은 금으로 신상을 만듭니다.

다니엘 3:1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육십 규빗이요 너비는 여섯 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여기서 높이가 육십규빗, 너비가 여섯 규빗이라 되어 있습니다.
규빗은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는 길이 단위를 말하는데요, 보통 한 규빗은 팔꿈치에서부터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 길이를 말합니다. 보통 45cm정도 됩니다.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은 높이각 육십 규빗이니 환산해 보면, 27m입니다. 이는 건물 10층에 해당하는 높이입니다. 그리고 너비는 여섯 규빗, 즉 2m70cm정도나 됩니다. 이 금신상은 그만큼 규모가 어마무시했습니다.

(옆면촬영)

큰 신상은 고대 유물들을 보면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비아의 아부심벨에 있는 신전에 위치한 람세스 2세의 거상들의 높이가 11.5m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집트의 스핑크스는 밑에서 머리끝까지 높이가 20m, 전체 길이가60m로 석회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멘호텝 3세의 거대한 멤논의 거들도 23m의 높이입니다.
미국에는 자유의 여신상이 있습니다. 총 93m의 높이인데요, 그 가운데 받침대를 제외한 높이가 33m입니다. 그렇기에 두라평지에 놓여있는 금신상은 거의 오늘날 자유의 여신상과 크기가 비슷한 정도라 보시면 됩니다.
이 신상의 높이가 60규빗, 넓이가 6규빗인 것은 상징성이 있습니다. 6이라는 숫자와 6의 배수는 고대 바벨론 종교와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바벨론의 신인 마르둑이 사용하는 고유숫자가 60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종교 지도자들은 60진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정면촬영)
아울러서 이 신상을 무엇으로 만들었다고 했죠? 이 신상을 금으로 만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을 통해 배운 것처럼 바벨론 도성에는 뭐가 많았죠? 네, 금이 매우 풍부하였습니다. 금으로 만든 신상이나 제단, 탁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온통 금으로 된 높이 60규빗 넓이 6규빗의 신상을 만들게 됩니다.

<3-왜 금신상 앞에 절하도록 했을까?>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금으로 만든 신상을 두라 평지에 세워 모든 백성들로 절하도록 했을까요?
아마도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서 2장에 기록된 꿈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마음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나라 금의 나라가 영원토록 존재하길 바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기를 왕 보다 못한 은의 나라 놋의 나라 철의 나라가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이 꿈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제국이 더 영원하길 바랬거든요. 그래서 그는 신상을 모두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머리만 금이 아니라 가슴과 팔 배와 넓적다리 온몸을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나라가 망하리라고 예언했던 꿈을 뒤바꿔 놓고자 하는 인간적인 몸부림이었습니다.
레바논에서 발견된 고대 비명에 이렇게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이전에 어느 왕도 성취하지 못한 것을 나는 했다. 아무도 혼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나의 왕다운 상을 영원하도록 세웠노라”
자기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의 왕다운 신상을 세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세우고 각지 모든 관리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우상숭배를 강요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권력을 이용하여 왕의 권력을 이용해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그가 세운 하나의 우상에게 경배토록 하였습니다. 아마도 느부갓네살왕은 그가 꿈꾸고 있는 대제국을 통치함에 있어서 종교의 힘을 이용하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하나로 통일된 종교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그가 만든 우상에게 강제로 경배하도록 하면서 그의 정치적 힘을 이용해 하나의 우상 하나의 종교를 강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다니엘은 없었습니다.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왜 그 자리에 다니엘은 없었을까요? 아마도 느부갓네살 왕은 그 자리에 다니엘을 초청하기에 매우 꺼림직 했을겁니다. 다니엘이 ‘금의 나라는 은의 나라에 망할 것이다’ 꿈을 풀이해주었는데 이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고 금의 나라가 영원할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금신상을 세우고 경배하는 일에 초청하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사단은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금신상을 세우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경배토록 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주목이 우상에게로 향하게 되길 바랬을 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순간 모든 사람들의 주목이 우상이 아닌 세 친구에게로 향합니다. 왕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죽을 것을 각오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유다 청년들이 그 자리에 당당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은 우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세 친구들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4-갈대아 사람들의 고발>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자 갈대아 사람들이 그들을 고발합니다.

성경에 '갈대아 사람들'이라고 기록된 이들은 사실상 바벨론의 고위직 점술가들입니다. 그들은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정치적인 시기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다니엘 덕에 지방 행정관직을 맡고 있으니 얼마나 눈에 가시 같았을까요?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을 보고 이때다 싶어 그들을 고발하였습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크게 노합니다.

다니엘 3:14~15
14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15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옆면 촬영)
가만히 말씀을 살펴보면 '모든 악기'라고 표현하면 될 것을 일일이 악기 종류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놀랍게도 이 악기들은 세계 각국에서 불러 모은 악기입니다. 다시 말해 세계 각국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 따라 모인 연합 오케스트라인 셈이죠. 바벨론 제국의 위상과 느부갓네살 왕의 위세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 할 수 있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우상 놀음에 빠진 독재자들은 항상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음악을 이용 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히틀러입니다. 그는 음악이 일체감을 형성하는 데 탁월한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국민을 휘어잡고 우민화하는 데 음악을 아주 적절하게 사용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각 지방마다 같은 모양의 신상을 만든 뒤 그가 동원한 오케스트라의 장엄한 음악 소리에 맞춰 신상에 절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명령을 듣지 않은 세 청년을 대하는 느부갓네살의 태도를 한 번 보시길 바랍니다.

(정면 촬영)
다니엘 3:15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왕의 명령을 어겼으니 벌을 내려도 시원치 않을 판에 자신의 말을 들어달라고 마치 사정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만큼 왕은 이 똑똑한 유다 청년들을 아끼고 존중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끝내 그들이 말을 듣지 않자 느부갓네살 왕은 크게 분노합니다.

<5-절대적인 가치를 붙잡는 세 친구들>
이에 세 친구들의 반응을 보실까요?

다니엘 3:16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얼마나 단호하고 분명한 태도인가요? 세상의 그 어떤 권력도 함부로 덤비지 못하는 무적의 존재 앞에서 그들은 의지를 굽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이상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들은 절대적인 가치를 붙잡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자주 변합니다. 우리가 절대적인 가치를 붙잡지 못하고 놓치게 만듭니다. 하지만 세 청년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절대 가치,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십계명 중에서도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첫 번째 계명을 목숨처럼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감성의 힘도 이성의 힘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말씀의 힘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참 진리를 붙들 수 있습니다. 절대 가치를 붙들고 권력에 굴복하지 않는 그들의 당당함을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 3:17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어떤 위기에서도 건져 주실 하나님을 의지했죠. 그래서 절대 권력에 대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사람은 두려움이 대상이 아니라 긍휼의 대상임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세 친구들의 고백을 다시 보겠습니다.
다니엘 3:18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 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순복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신앙은 이렇다 생각됩니다. 우리의 계획을 말씀드리고 우리의 요구를 응답받는게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계획 앞에 우리가 설득당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지만, 만약 하나님이 그들을 불구덩이에서 죽게 하신다면 그것조차 기꺼이 받아들이겠다고 선언하죠.

루마니아 혁명 때, 요셉손이라는 목사에게 한 군인이 총을 들이대고 신앙을 포기하라고 협박했습니다.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면 방아쇠를 당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요셉손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이는 게 네 무기라면 죽는 것은 내 무기다. 그러니 네가 나를 죽여야 내가 승리한다.

참 대단한 신앙입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영원히 변하지 않을 절대 진리인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거대한 세상과 맞설 수 있는 당당함, 그것이 참 신앙입니다.

<6-풀무불에 던져지다>

(옆면 촬영)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것인데 그리하시지 않을지라도 왕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말한 세 친구에게 느부갓네살왕은 매우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하고 집어 넣으라 명령했죠. 결국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니엘 3:22-23

22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23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풀무불에 세 친구들을 넣으려던 사람들은 불에 타 죽고 맙니다. 그 광경을 지켜본 느부갓네살왕은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죠. 더 놀라운 것은 분명 결박한 채로 세 친구들을 불구덩이에 집어넣었는데, 지금 불 가운데로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이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당하는 고난 속에 함께 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머리털 하나 상함 없이 그들을 풀무불에서 건져 내십니다.

(앞면 촬영)

다니엘 3:27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 탄 냄새도 없었더라

이보다 놀라운 반전이 어디있을까요? 참으로 극적인 승리입니다. 이는 장차 예수님이 사망이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리를 이루신 사건의 예표가 됩니다.

하나님은 3장까지 두 가지 사건을 통해 느부갓네살왕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한 사건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서 건짐을 받은 사건을 통해 이 땅에 영원한 나라는 없으며,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뒤 느부갓네살 왕은 다시 한 번 하나님을 높이며 그분의 나라가 영원함을 고백합니다.

<7-느부갓네살의 다른 꿈>

다니엘서 4장은 매우 특이한 부분입니다. 4장의 내용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나 이스라엘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방인, 그것도 대 제국의 왕의 시점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의 자서전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면 다니엘 4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또 한 번 꿈을 꾸게 됩니다.

다니엘서 4:4-5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리 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평강할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실 느부갓네살 왕은 위대한 정복자 이면서 전제 군주였고, 거대한 바벨론 도성을 건축한 건축자였습니다. 43년간의 재위기간에 대부분을 전쟁터에서 보냈구요, 본국에 돌아와서는 거대한 바벨론성을 짓는데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마침내 정복전쟁과 대 제국 건설을 마친 다음에 드디어 본문의 말씀처럼 편히 있으며 평강 할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온 제국이 이제 그 손아귀에 달려있었습니다. 말그대로 평화롭고 안전할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는 또 다른 한 꿈을 꾸죠. 다니엘 2장과 흡사한 모습입니다. 그 꿈으로 인하여 매우 고민하고 번민하게 됩니다.

<8-두 번째 꿈의 해석>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도 결국 다니엘이 해석해 줍니다. 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니엘 4:10~14

10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리 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11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12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13 내가 침상에서 머리 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에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14 그가 소리 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헤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옆면 촬영)

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고 컸습니다. 얼마나 무성한 나무인지 열매도 많이 열리고, 온갖 짐승이 나무 그들에서 쉼을 얻으며 가지마다 새들이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바벨론 제국의 왕인 느부갓네살을 상징합니다. 나무 안에 사는 각종 짐승과 새는 저마다 이기적인 계산 속에서 그에게 빌붙어 사는 이들을 뜻합니다. 이 때 한 순찰자가 나타납니다.

다니엘 4:13
내가 침상에서 머리 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에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여기서 한 순찰자는 누구일까요? 그는 장차 왕 중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한 순찰자가 와서 한일을 주목해보세요.
다니엘 4:14
그가 소리 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헤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앞면 촬영)
순찰자는 큰 나무를 베어 버리라고 말합니다. 농사를 지어보면 알게 됩니다. 튼실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계절마다 가지치기 작업을 해야합니다. 제가 몇 년 전 시니어대학 야외학습을 준비하며 2월에 청송으로 답사를 갔었습니다. 청송하면 사과로 유명합니다. 길거리 마다 사과를 팔고 있었습니다. 겨울이라 사과밭에 사람들이 없을 줄 알았는데 두세명씩 사과밭에서 일을하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니 가지치기를 하고 있더라구요. 쓸데없는 곳으로 양분이 가는 것을 막기 위해 불필요한 가지를 잘라 내는 것입니다. 가지가 많으면 나무가 크게 보이긴 하지만 양분이 제대로 열매에 전달되지 않습니다. 순찰자 역시 이러한 관점으로 불필요하게 커진 나무를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비본질적인 요소를 덜어내고 본질만 남겨두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왕은 자신이 꾼 꿈의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꿈의 내용을 듣고 너무 놀랍니다.

다니엘 4:19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이 꿈이 얼마나 무서운 꿈이었던지 다니엘은 “차라리 왕의 대적에게 이 꿈이 응하길 원한다‘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 4:20~23
20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21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22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23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 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 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일곱 때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한 때 무성했던 나무가 그루터기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루터기라도 남긴다는 것은 여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최종 심판의 때까지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유다백성 뿐만 아니라 이방 왕 느부갓네살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역사 속에서 사용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죄악은 징벌하시되 그를 아주 엎드리게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꿈을 통해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기회를 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니엘은 꿈을 풀이합니다.

단 4:26~27
26 또 그들이 그 나무뿌리의 그루터기를 남겨 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27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왕이 회개한 다음에야 비로소 그의 나라가 견고해 질 것이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지만 심판의 메시지를 여과 없이 대언하는 것이죠. 다니엘의 행동은 목숨을 건 행동이었습니다. 각종 좋은 말로 아첨하는 거짓 술사와 거짓 선지자들 사이에 다니엘은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사람을 두려워하라”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9-교만한 인생은 낮아지게 됩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풀이해 준 뒤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단 4:28~31
28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29 열두 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새
30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31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제국이 가장 전성기에 있을 때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나라가 힘 있고 번성할 때 영적인 타락이 시작됩니다. 사람은 여유있고 물질적으로 넉넉할 때 죄를 저지르기 쉽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돈 쓸 겨를 없이 바쁘게 일하는 것이 오히려 복일 수도 있습니다.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죄 지을 생각을 할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잘 나갈 때 도리어 더욱 더 철저히 자신을 되돌아 봐야 합니다.
(옆면 촬영)
요즘 수술할 때 마취제를 사용해 환자의 고통을 크게 줄여줍니다. 그 마취제를 처음 개발하고 보급한 영국의 의사, 제임스 심프슨에게 어느 날 학생이 물었습니다.

“선생님의 인생 중에 가장 위대한 발견은 무엇인가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가 마취제를 발견한 것이라고 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모두의 예상을 뒤업고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것이 가장 큰 발견이다.

하나님은 결코 교만한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겸손한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틀릴 수도 있음을 알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을 그루터기가 되기까지 낮추십니다. 스스로 자신을 짐승이라고 착각하는 동물화망상(Zoanthropy)에 걸리게 하신 것입니다. 한순간에 제국의 왕에서 처참한 병에 걸려 짐승의 흉내를 내며 숲속을 방황하는 자가 된 것이죠. 하나님은 수차례의 경고에도 돌이키지 않았던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을 가장 밑바닥으로 던지십니다. 인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뼈져리게 배운 것이죠. 혹독한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며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온 몸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10-느부갓네살의 고백>
(정면 촬영)
그리고 그는 이렇게 하나님을 높입니다. 느부갓네살의 고백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 4:37
37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므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느부갓네살은 교만으로 인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다시 한 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잘못을 하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의 나됨은 나로 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주심을 겸손히 인정하고 그 분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하루되시길 소망합니다.

다니엘서 3강

인트로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주권찾기 다니엘서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다니엘 5장과 6장을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아시는 손가락이 나타나 글씨가 새겨지는 사건부터 사자굴 이야기까지 다루게 됩니다. 오늘 강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대반전의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자 그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1. 느부갓네살 죽음 이후 바벨론

(옆면 - 1촬영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바벨론에는 네 명의 왕을 거쳐갑니다. 느부갓네살 아들 마르둑 왕이 2년간 통치하다가 고모부 네리그리살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가족간에 비극이 일어난 것이죠. 네리그리살 왕은 4년간 통치 한 뒤, 라바시-마르둑 왕에게 왕권을 빼앗깁니다. 하지만 이 왕은 겨우 9개월간 왕권을 유지하게 됩니다. 잦은 왕권 교체로 바벨론 제국은 매우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왕으로 나보니두스가 세워집니다. 나보니두스는 왕권의 정통성을 위해 느부갓네살의 딸과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다니엘서 5장에 등장하는 벨사살 왕입니다. 나보니두스는 약 17년간 바벨론을 통치하여 마지막 10년은 거의 전쟁을 치렀습니다. 군대를 이끌고 나가 전쟁터에서만 10년을 보낸 것이죠. 그러다보니 자신이 전쟁터에 있는 동안 본국을 다스릴 자가 필요했고, 자연스럽게 아들인 벨사살에게 통치권을 위임했습니다.

벨사살은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으로 '벨'은 '왕이 보호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벨사살 왕은 이름처럼 자신을 신격화 하는데 노력했습니다.

(옆면촬영 끝)

2. 벨사살 왕의 술 잔치

다니엘 5:1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천 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천 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지금 벨사살 왕은 귀족들을 모아놓고 술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때는 아버지 나보니두스 왕이 메대 바사 제국과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아들은 술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벨사살이 천 명의 사람들을 모아 놓고 술잔치를 벌이는데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벨사살 왕은 바벨론 왕국이 여전이 최고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계속 되다보니 백성들은 불안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에 술잔치를 벌여 백성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싶었던 것이죠.

다니엘 5:2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여기에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벨사살의 아버지는 나보니두스입니다. 나보니두스의 아

버지가 느부갓네살이죠. 벨사살에게 느부갓네살은 할아버지인셈입니다. 그런데 그를 부친이라 말합니다. 이는 그당시 바벨론 사람들은 아버지 위로 모두다 부친이라 불렀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벨사살 왕은 전쟁에서 취했던 전리품을 모두 가져오게 합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할 당시 빼앗은 금과 은그릇을 총동원하여 술을 따라 마시며 바벨론의 힘을 과시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빛난 과거를 다시 한 번 기억하게 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서를 통해 계속 말해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땅에서 영원한 나라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나보니두스 왕은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계속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들인 벨사살 왕은 나라 안에 바벨론이 아직 건재함을 보여주기 위해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이죠.
그는 이 잔치가 영원할 것처럼 여기며 취하였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술 잔치를 벌이고 난뒤 “우리는 참 좋은 시간을 보냈소”라고 서로를 위로하며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육체에 술을 가득 채웠지만 영혼에는 어느 무엇도 채울수 없는 공허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3.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벨사살이 천명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 놓고 벌인 성대한 잔치가 끝날 무렵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다니엘 5:5-6
5 그 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6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친지라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더니 불빛이 비치는 왕궁의 흰 석회벽 위에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몸도 없이 손가락만 나타나 글을 쓰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상황이었겠습니까? 이 광경을 본 벨사살 왕은 얼굴빛이 창백해 집니다. 겁에 질려 재정신이 아니었죠. 다리에 힘이 빠지는 듯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벨사살 왕은 주술사와 점성가와 점쟁이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벽에 쓰인 글을 보고 뜻을 말하는 자는 이 나라에 셋째 가는 통치자로 삼을 것이라 말합니다. 첫 번째 통치자는 아버지 나보니두스 왕이고, 두 번째 통치자는 벨사살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 글씨를 해석하는 자에게 통치권을 준다는 것이죠. 이것은 엄청난 제안이었습니다. 과연 모든 점쟁이와 술사 중에서 이 글씨를 해석할 수 있었을까요? 어느 누구도 풀지 못했습니다.

그때 왕비가 벨사살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다니엘 5:12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

가 그 해석을 알려 드리리이다 하니라

그렇게 왕비는 다니엘을 추천합니다. 사실 당시 다니엘은 여든이 훨씬 넘는 나이었습니다. 벨사살왕도 선조 때부터 있었던 다니엘에 대해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의 말을 듣고 난 후 바로 다니엘을 부릅니다. 여든이 훨씬 넘었지만 왕비의 말대로 여전히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었던 다니엘이었습니다. 이제 다니엘은 벨사살 왕 앞으로 나옵니다. 벨사살 왕은 갖가지 상급을 겁니다. 해석만 하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어주어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 합니다.

(옆면 3- 촬영 시작)

자주색 옷은 고대 시대 최고의 신분을 상징했던 옷입니다. 이 당시 자주색으로 염색한 옷은 그 엄청난 가격과 염색과정의 어려움 때문에 최고급 옷감으로 인정되었고 곧 권위와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신약성경에서도 자주색에 대해 자주 등장하는데요. 사도행전에보면 자주장사 루디아도 있습니다. 최고급 원단인 자주옷감으로 국제무역을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처럼 자주색옷은 최고의 권력과 부유함을 상징했습니다.

(옆면촬영 끝)

하지만 여기서 다니엘은 왕의 상을 거절합니다. 이제 평생 부유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기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보다 큰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석회벽에 쓰인 글자를 해석하기 앞서 먼저 벨사살의 죄를 지적합니다. 어느 누가 왕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다니엘은 지금 목숨을 걸고 선포한 것입니다.

다니엘 5:22-23
22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23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재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하나님께서는 벨사살의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에게 절대적인 권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했지만 잠시 뿐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갔고, 결국 짐승처럼 사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벨사살은 그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죄악을 똑같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4.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제 다니엘은 석회벽에 쓰인 글씨를 해석합니다.

다니엘 5:24-26
24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25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26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어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27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 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28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옆면 4- 촬영 시작)
성경에 나오는 손가락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손가락으로 벽에 쓰여진 글씨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이겠죠.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는 '셈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메네'라는 단어를 두 번 사용합니다. 두 번 반복해서 쓴 것은 아주 자세하게 세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제국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면서 아주 정확히 헤아리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정확히 '메네, 메네' 셈하시며 헤아리고 계십니다.
메네 메네는 또한 여지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돌아오길 바라셨는데 돌아오지 않는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메네 다음으로 쓰여진 단어는 무엇인가요? 데겔입니다. 데겔은 저울로 달아 봤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저울은 하나님의 법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달아보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어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바르신입니다. 우바르신은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것인데요, '그리고'를 뜻하는 '우'와 '베레스'의 복수형 '바르신'입니다. 바르신은 나라를 뜻하는데 복수형이니 두 나라라는 의미겠죠.
이것은 즉, 바벨론이 메대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 두 나라로 쪼개진다는 의미입니다. 벨사살은 바벨론이 영원할 것처럼 술잔치를 벌이지만 결국 마지막은 어떻게 되나요? 두 나라로 쪼개지고 맙니다. 그 당시 그 어느 누구도 바벨론이 망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계속 나라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다니엘을 통하여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셨습니다.
(옆면촬영 끝)
벨사살왕은 이 선포를 듣고 약속대로 다니엘에게 자주색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며 셋째 통치자로 삼기위해 조서를 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날밤 벨사살왕은 죽임을 당합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은 결국 메대 사람 다리오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을 높이며 악을 저질렀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전에 나온 그릇에 술을 마심으로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셋째, 우상숭배를 통하여 영적으로 타락하였고 넷째, 사치와 방탕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했습니다.
그렇게 정말 하루 밤에 거대한 제국이 무너졌습니다. 한 나라가 세워지고 무너지는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나라가 세워지고 무너지는데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단지 하룻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할 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5. 메대 다리오왕의 등장
영원할 것만 같았던 바벨론은 망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다리오 왕도 역사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로는 두 가지 설이 있는데요, 고대 시대에는 왕이 이

름이 두 가지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메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다리오 왕과 동일한 인물일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성경에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누군가가 가지고 있던 것을 얻게 되었다는 의미이죠. 다니엘서 9장 1절에 보면,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잘 살펴보면 다리오는 갈대아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누군가로부터 통치권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통해 다리오가 고레스왕과 동일인물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리오는 메대 페르시아 제국의 총 사령관이었습니다. 고레스 왕 다음으로 권력을 쥐어 제 2인자로 불렸습니다. 그는 벨사살 왕이 죽던 날에 군대를 이끌고 습격하여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렸습니다. 당시 고레스 왕은 온 세계를 손아귀에 쥐고 영토를 넓혀 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제국이 바벨론이었는데, 바벨론을 함락 후 모든 지역을 다스릴 수 없어서 공을 세운 다리오에게 바벨론 일대를 통치하도록 위임한 것이죠.

6. 세움 받은 다니엘
다리오는 왕으로 세움 받은 후 정권을 교체 합니다. 백이십 명의 고위 관리를 교체하고 그 위에 세 명의 총리를 둡니다. 세 명의 총리 중 하나가 바로 다니엘 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였고 여든 다섯 정도의 노인이었습니다. 그런 다니엘을 한 나라의 총리로 세운 것이죠. 다니엘은 왕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6장 3절 말씀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 말씀처럼 다니엘은 총리 중에 가장 탁월하였습니다. 다니엘을 마음이 민첩한 사람이라 표현합니다. 여기서 '민첩하다'는 것은 속도가 아닌 영적인 의미로 바라봐야 합니다. 민첩하다는 것은 '성령에 붙들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민첩해집니다. 상대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민첩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이처럼 성령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뜻에 민첩해집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은 여든이 넘는 나이었지만 성령에 붙들리어 행동하였기에 모든 고관들보다 뛰어났던 것입니다.

7. 다니엘을 시기한 고관들의 계략
그렇기에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통해 나라 전체를 통치하도록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니엘을 보며 다른 관리들이 좋아했을까요? 어떻게든 다니엘의 약점을 찾아 끌어내리려 했을 것입니다.

다니엘 6장 4절 말씀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옆면 7- 촬영 시작)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감추고 싶은 허물이 많게 됩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하던 고관들이 다니엘의 파헤치고 파헤칠수록 그의 성실함과 정직함이 돋보이게 됩니다. 업무에 있어서 태만이나 과실의 증거도 전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다니엘의 흠집을 찾길 포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반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우리를 유독 괴롭히는 사람들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인내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기려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옆면촬영 끝)
그러나 고관들은 어떻게든 다니엘을 끌어내리려 모의합니다. 왕을 통하여 종교적인 문제로 다니엘의 흠집을 잡으려 했던 것이죠. 왕에게 찾아가 칙령을 내리도록 요구합니다. 그 칙령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니엘 6장 7-8절 말씀
7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삼십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 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8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의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30일동안 다른 어떤 신이나 인간에게 기도를 올려서는 안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을 칙령으로 내려 모든 메대 페르시아의 법처럼 철회가 불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른말로 하면 다리오 왕으로 하여금 30일동안 신이 되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사람은 높아지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에 다리오 왕으로서는 흔쾌히 이 법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고관들은 높아지려는 다리오왕의 마음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다리오왕은 다니엘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칙령이 담긴 조서에 도장을 찍어 법을 통과시킵니다. 메대 페르시아의 특이한 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절대로 한 번 만든 법은 왕이라 할지라도 변경할 수 없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왕을 신의 대리자 또는 신의 아들로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렇기에 왕은 완전하며 또한 왕의 법령도 완전 무결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때문에 왕의 조서는 어인으로 인이 쳐지는 순간부터 변개치 못할 법률로서 절대적인 구속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고관들이 노렸던 것입니다.

8. 굴복하지 않는 믿음의 기도
이러한 왕의 칙령에 다니엘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30일 동안 어느 신에게도 기도를 드려서는 안된다는 조서가 공표 되었음에도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기도하였습니다. 집 위층에 올라가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루에 세 번씩 하나님께 기도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왜 구지 다니엘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였을까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골방에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텐데 말이죠. 법이 공표되었으니 그날 만큼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기도했어도 됐을텐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이 이유를 열왕기상 8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옆면-8 촬영 시작)
8장에서 솔로몬은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봉헌식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8장 38-39절에
이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또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 48절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아마도 다니엘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 할 때 그 기도를 들어달라 솔로몬은 기도했던 것이죠.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위험을 무릎쓰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에 힘이 있으려면 말씀에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그 기도에 힘이 있습니다.
(옆면촬영 끝)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언했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후 70년만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 약속을 믿고 다니엘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길 원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코로나의 시대 속에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고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꿈꾸길 기도해야합니다.

9. 사단은 사자굴의 입구를 막았지만,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막으셨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본 고관들은 곧장 왕에게 달려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왕께서는 삼십일 동안 누구도 다른 신에게 기도를 올리면 안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자 왕이 “물론이오, 메대 페르시아의 법은 절대 변경할 수 없소”
이에 그들은 다니엘이 왕의 칙령을 무시하고 하루에 세 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한 것을 말합니다. 평소에 다니엘을 아끼고 사랑하던 다리오왕은 어떻게던 다니엘을 구하려고 몹시 애를 씁니다. 그러나 고관들은 다시 한 번 메대 페르시아 법은 절대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키죠.
(옆면-9 촬영 시작)
결국 다니엘을 붙잡아 사자굴에 넣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고대 근동시대에는 사형수를 돌로 치거나 칼로 죽이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을 모독하거나 왕의 법령을 어기는 자들에게는 산 채로 풀무불에 태워 죽이거나 맹수 가운데로 던져서 찢겨 죽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바벨론의 초기 유적지에서 발견된 벽돌 가마처럼 보이는 특이한 모양의 건물을 통해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건물의 용도를 기술한 비문에는 '사형장인 이곳에서 갈대아의 신들을 모독한 사람들을 화형시켰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편 몇몇 고고학자들에 의해 '사형장인 이곳에서 왕의 노여움을 산 자가 맹수에게 찢겨 죽었

노라'는 글이 적힌 우물을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수산궁의 유적지에서는 사자굴에 던져져 죽은 B.C.484년경의 고관 명부가 발견되었고, 앗수르 왕 앗술바니팔이 그의 조부 산헤립을 본받아 '반역자들을 산 채로 황소와 사자굴 속에 던졌노라'는 기록도 남겨져 있습니다.
(옆면촬영 끝)
그렇게 다니엘은 왕의 법령을 어겨 가장 큰 형벌인 사자굴에 넣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해를 당하지 않길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말합니다.
다니엘 6장 17절 말씀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으매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사단은 이 사건을 통하여 다니엘의 기도를 막으려 하였습니다. 질투와 시샘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지 않도록 막습니다.

하룻밤이 끝나고 다리오왕은 다니엘이 있는 사자굴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부르죠. 이에 다니엘의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니엘 6장 22절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다니엘의 몸을 살펴보니 사자에게 공격당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대반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나라의 회복을 막으려는 사단의 계략을 알고 다니엘을 구원하십니다. 사단은 하나님 나라를 막기 위해 사자굴 입구를 막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 사자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악인들의 승리로 보였지만 결과는 하나님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기도가 지속되도록 하셨습니다.

10. 기도하는 자는 형통합니다
이제 다리오왕은 느부갓네살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니엘 6장 26-27절 말씀입니다.
26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27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은 사자굴 사건을 통하여 다리오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지못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 구원의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다니엘의 마지막은 어땠을까요?

마지막으로 다니엘 6장 28절 말씀입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형통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코로나를 살아가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지금

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기도의 끈 꽉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찾기 _ 다니엘서 4강

1. 다니엘 7장 개요

다니엘서 7장은 다니엘서 전체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다니엘서는 두 가지 언어를 사용하였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사용하는 히브리어와 당시 공용어인 아람어였습니다. 다니엘서는 이렇게 두 가지 언어로 되어 있는데 같은 단어라도 각 언어마다 그 쓰임이 달라 한 절 한 절 그 의미를 정확히 집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건을 중심으로 기술된 6장과는 달리 7장부터는 묵시적 내용이 많기 때문에 더욱 이해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묵시'가 뭐라고 하였죠? 덮개를 벗기다', '감추인 것을 드러내 보이다' '비밀을 폭로하다'는 뜻으로, '감춰진 뜻을 성령을 통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내용을 요한계시록과 연결해 해석하다 보니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견해가 옳고 그른가를 따지기 보다는 다니엘서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한 관점으로 다니엘서 후반부를 바라보면 좀 더 쉽게 말씀의 매듭을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 상징과 의미 – 옆면촬영 시작

7장을 살펴보기 전 먼저 성경에 나오는 여러 단어들이 어떤 상징과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바다

이사야 17:12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 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많은 백성들의 움직임을 파도가 치는 것처럼 묘사합니다. 바다 속에서 짐승들이 나오게 되는데 많은 물인 바다는 백성과 많은 무리를 의미합니다.

- 바람

스가랴 7:14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에 보면 바람을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나라로 흩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바람은 전쟁과 싸움과 재난을 의미합니다. 전쟁으로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음을 보여줍니다.

- 짐승

다니엘 7:23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커다란 짐승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짐승은 이 세상에 등장하게 될 나라, 혹은 왕을 의미합니다.

- 뿔

다니엘 7:24
그 열 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세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뿔은 왕과 왕국, 왕권과 같은 힘과 권력을 의미합니다.

- 날개
예레미야 4:13
보라 그가 구름 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짐승들 가운데 날개를 단 짐승이 나옵니다. 날개는 매우 빠르고 신속함을 의미합니다.

- 하루(예언상 기록된 하루)
예언상에 기록된 하루는 실제 1년이라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일 원칙이라 합니다.
하루를 일년으로 계산하는 것이죠
에스겔 4:6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사십 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일 년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동안 광야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하루를 일년으로 계산에서 죄값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니엘에서 '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니엘 11:13
북방 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때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성경이 기록된 때는 1년이라는 시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몇 가지 상징의 키워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다니엘 7장과 8장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리라 생각됩니다. **옆면촬영 끝**

3. 다니엘 7장 내용
역사적으로 볼 때 7장의 계시는 바벨론이 멸망하기 전보다 약 10여년 전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 7장의 계시는 다니엘 4장과 5장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서는 다니엘이 꿈속에서 본 환상이 소개됩니다.
환상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옵니다.
바다는 많은 백성이 있는 인간세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네 마리의 큰 짐승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모양이 서로 다릅니다.
역사의 주 무대였던 유럽을 중심으로 큰 바람이 네 번 불더니 네 짐승이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네 번의 큰 전쟁이 있다가 네 왕국이 일어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다로 표현된 인간 세상에 이해관계가 뒤엉켜 한 바탕 큰 바람이 불고나면 그 결과 역사의 새로운 주인공들이 나타나고 또 사라지는 흥망성쇠를 생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짐승은 무엇일까요?

4. 첫번째 짐승-사자

첫 번째 짐승을 다니엘 7장 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7:4

4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니엘이 보았던 첫 번째 짐승은 사자로 표현되었습니다. 보통사자가 아니라 독수리의 날개를 가졌습니다. 사자로 표현된 짐승은 네 왕 제국가운데 어느 제국에 해당되는 것일까요? 바로 다니엘이 살고 있었던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은 실제 역사 속에서도 사자로 표상되었습니다.

옆면촬영

'이슈타르의 문'이라는 성문이 있는데요 이 성문은 고대 도시 바벨론(지금의 이라크 지역)의 간선도로 위에 있습니다. 높이는 12m가 넘고 대문의 누각을 관통하여 돌과 벽돌로 포장된 행차의 길이라는 대로가 뻗어 있었는데 이 길은 약 800m정도 됩니다.

이 대로의 양편에 보면, 바벨론 사람들이 믿는 마르둑이라는 신들이 도시를 보호해준다는 의미로서 사자나 황소 용들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슈타르의 문을 지나면 작은 신전이 나오는데 매년 마다 마르둑이 여기를 방문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바벨론은 동물의 왕 사자로 묘사될 만큼 문화와 규모가 대단했습니다.

옆면촬영끝

그런데 다니엘은 첫 번째 짐승에 대해 이렇게 예언합니다.

동물의 왕인 사자와 새들의 왕인 독수리로 상징되었던 바벨론, 그러나 후에는 날개가 뽑혔고 사람의 마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의 세력이 약하고 사자의 용맹함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처럼 연약하게 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 이후에 바벨론 보좌 위에는 하나같이 마음이 약한 통치자들이 계승하게 됩니다.

5. 두 번째 짐승 - 곰

두 번째 짐승은 다니엘 7장 5절에 등장합니다.

다니엘 7:5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잇사이에는 세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곰으로 상징된 메데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사자의 위엄은 갖추지 못했지만 끈질기고 물러설 줄 모르는 용맹과 잔인함이 특징인 곰은, 매대와 페르시아를 상징하기에 적절합니다. 특별히 한 번 재정하면 영원히 변경할 수 없는 페르시아의 미련한 법이 있었는데요. 이 미련한 성질은 곰의 특성에 잘 부합됩니다.

이 곰의 특징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몸 한쪽을 들었고라는 표현이 있는데 완벽한 균형을 이루지 못한 것이죠. 다니엘 2장에 나왔던 두 번째 나라는 은으로 두팔을 가진 가슴으로 묘사되었습니다. 두팔을 가졌다는 것은 메데와 페르시아의 연합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몸 한편을 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두 나라가 연합을 이루긴 했지만 그 세력의 균형이 잡히지 않았음을 알려줍니다.

메대와 페르시아는 다 함께 인도와 유럽계의 동일한 인종인데요, 이란 고원을 중심으로 공존해 온 형제 지간의 나라였습니다. 초기에는 메대가 주도권을 행사했으나, 고레스가 등장하면서 페르시아가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옆면촬영

헤로도토스가 기록한 역사라는 책에 보면, 고레스 왕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고레스가 역사 속에서 등장하지 못할 사건이 있었습니다. 메대사람들이 왕이며 페르시아인들의 대 군주였던 아스티아게스에게 딸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만다네라 하였습니다. 만다네를 메대인과 결혼시키지 않고 페르시아인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바로 고레스(키루스)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아스티아게스가 이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자기 딸 만다네가 소변이 마려워서 소변을 놓는데 이로 인해 홍수가 나서 온 나라가 물에 잠기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꿈을 꿨는데 만다네의 자궁에서 한 나무 뿌리가 자라는데 그 뿌리가 온 나라를 뒤덮는 꿈을 꾸게 됩니다. 아스티아게스는 매우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꿈의 해석을 물어보니 다들 '왕의 나라가 왕의 후계자에게 넘어가지 않고 공주 만다네가 낳은 아들이 이 나라를 이어 받게 되는 꿈'이라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스티아게스는 늘 외손자가 왕을 물려받는 것을 못마땅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어린 고레스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의 수석 고문관이었던 하르파고스에게 명령합니다. 하르파고스가 어린 고레스를 데려다가 죽이려고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순진하게 바라보는 아기 고레스를 차마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때 깊은 산속에서 어디선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르파고스가 이 웃음소리를 따라 찾아가 보았더니 한 목자의 집이 있었습니다. 가보니 목자의 아내가 아기를 낳다가 아기가 죽게 된 것입니다. 하르파고스는 그 목자에게 이 아기가 어디서 왔는지 묻지말고 잘 키워달라 요청합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고레스는 왕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 비범하고 놀랐습니다. 시골동네에서 고레스는 모든 사람에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훌륭했던지 그의 소문이 왕궁까지 전해졌습니다. 결국은 아스티아게스가 고레스를 왕궁으로 불러오게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요? 자기가 어릴적 죽이라 명령했던 고레스입니다. 그래서 하르파고스를 불러 어떻게 된 일인지 묻습니다. 하르파고스가 자초지종을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고레스를 보니 매우 훌륭하게 자란 것이에요. 아스티아게스는 자신의 꿈에 게이치 않고 주변에 권유를 받아들여서 고레스를 왕궁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그 꿈대로 되었습니다.

그후 고레스는 아스티아게스에게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스티아게스는 자신의 군대로 고레스의 반란을 진압하려 했지만 그의 군대가 그를 배신하고 고레스에게 항복을 합니다. 결국은 고레스가 메대 페르시아의 모든 주도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레스는 메대 페르시아 연합군을 이끌고 바벨론을 무찌르는 선봉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고레스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나의 목자 고레스가 내 백성을 회복하고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을 내릴 것이라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마터면 고레스가 어릴 적에 그만 목숨을 잃고 역사 속에 묻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리시고 구속의 사업을 이루어나가게 되었습니다.

옆면촬영끝

다시 다니엘로 돌아와 5절에

곰 입의 잇사이에 세 갈빗대가 물려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메대와 페르시아에 의해서 정복될 세 나라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BC 547년 리디아 / BC 539년 바벨론 / BC 525년 이집트
다니엘 꿈의 이상처럼 메대 페르시아는 세 나라 큰 나라를 무찔렀습니다. 명실공이 고대 근동을 제패하는 대제국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아울러 이상 가운데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는 표현은 서방원정에서 나타난 페르시아야 야욕과 잔인성을 묘사하며 바벨론 보다 더 많은 살육의 전쟁을 치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예언했고,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6. 세 번재 짐승 - 표범
세 번째 짐승은 다니엘 7:6절에 나타납니다.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표범은 체구는 작지만 빠르고 용맹스러운 맹수입니다. 게다가 신속한 행동을 의미하는 날개를 달았음은 한층 빠르기를 강조합니다.
다니엘서 2장을 통해 배운 것처럼 메대 페르시아 다음 나라는 어디인가요? 바로 헬라제국입니다. 헬라를 큰 제국으로 만든 왕이 누구였죠? 알렉산더 대왕이었습니다. 사실 알렉산더는 그리스의 정통 민족은 아닙니다.

옆면 촬영
그리스 지역에서는 고대부터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서로 권력을 쥐고 싸웠습니다. 강력한 육군을 가진 스파르타와 강력한 해군을 가진 아테네가 서로 경쟁하게 됩니다. 이것이 유명한 펠로폰네소스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스파르타가 승리하게 되고 아테네가 패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그리스의 주도권이 아테네에서 스파르타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후에도 스파르타는 계속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와중에 혜성처럼 등장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인들로 야만인 취급을 받았던 마게도냐사람입니다. 원래 마게도냐는 페르시아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냐의 기초를 단단히 다진이는 필립 2세라는 왕이었습니다. 바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입니다. 필립 2세는 왕이 되기 전에 그리스 세계에서 가장 강한 도시였던 테베의 인질로 잡혀 있었습니다. 이때 아버지 필립에 이어 20세에 왕위에 오른 알렉산더는 22세때에 기원전 334년 봄에 긴 창을 사용하는 돌격부대와 기마병으로 구성된 3만 5천명의 소수 군대와 70달란트 밖에 안되는 군자금과 일개월분의 군량만 가지고 332년 팔레스틴을 정복합니다. 이어 이집트 시리아를 지나 유프라테스강과 티그리스강을 건너 페르시아를 정복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이 10년 안에 20대의 젊은이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마치 표범과 같은 용맹과 기민성을 가지고 동서남북으로 새처럼 날 듯 정복하였습니다.
옆면 촬영 끝
다니엘 7장 6절에 보면 머리 넷이 있다 표현합니다.
머리는 지도자 곧 왕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리스 제국이 네 왕에 의해 나뉘어 질 것을 상징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죽기전에 힘쎈자가 이 나라를 차지한다는
이렇게 다니엘서 7장에서 보았던 그 꿈의 내용대로 정확하게 성취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헬라제국이 네 명의 장군에 의해서 분할 통치되는 표범이 네 개의 머리를 갖게 되는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 집니다.

7. 네번째 짐승(무서운 괴물)과 뿔

마지막 네 번째 짐승은 다니엘 7장 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다니엘 7:7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더라

다니엘서 2장에서 공부한 것처럼 네 번 째로 등장하는 제국은 철의 제국 로마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을 이어 세계를 통일한 것은 라틴민족 로마였습니다. 기원전 1세기에 이미 유럽전역과 아프리카를 정복했구요. 철이 강한 금속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강력한 군사조직으로 많은 나라를 쳐서 부서뜨리게 됩니다. 다니엘 2장의 철의 나라와 일맥상통합니다.

에드워드 기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제국은 온 세계를 가득 채웠으며, 이 제국이 어느 개인의 손에 넘어갔을 때 세계는 그의 원수들에게는 하나의 금고나 두려운 감옥이 되고 말았다. 저항하는 것은 파멸이었으며, 도망친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바로 무서운 괴물이 매우 난폭하게 그의 정복한 나라를 다스리고 짓밟을 것이라는 예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로마는 매우 무서운 악행들을 저지릅니다. 로마는 못과 망치를 이용해 십자가를 만듭니다. 예수님도 그의 제자들도 십자가에 메달려 죽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200년이상 핍박을 통해 무수한 그리스도인들이 재산과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뿔

다니엘 7:7-8

7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더라

8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의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7절의 열뿔은 다니엘 7:24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 열 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다니엘 2장에서는 철의 나라다음에 열 개의 발가락시대에 대해서 예언했는데, 7장에서는 무서운 동물에게서 열 개의 뿔이 돋아난다는 것이죠. 다니엘이 열 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에 일어날 열 왕을 말합니다. 로마가 약화될 무렵 게르만 민족이 침입하고 그 영토를 각각 차지하여 오늘날 유럽의 분열된 나라들의 기초를 놓게 됩니다.

8. 영원한 나라

다니엘의 꿈을 종합해 보자면,

첫 번째 짐승은 사자 같고, 두 번째는 곰, 세 번째는 표범 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네 번째 짐승은 생김새가 다른 세 짐승처럼 무섭고 강해보이기는 한데 그 형태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양도 다릅니다. 게다가 쇠로 된 큰 이로 다른 짐승을 먹고 부수기까지 합니다. 다니엘은 꿈속에서 이 환상을 본 뒤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알지 못해 마음속으로 번민합니다. 그러다 그의 곁에 있는 한 사람에게 나아가 물었습니다. 그 한 사람은 천사 가브리엘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때때로 천사가 등장하는데 그중 가브리엘은 언제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역할을 맡은 천사입니다.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환상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해석해 줍니다.

다니엘 7:17-18
17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18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여기서 왕은 국가를 상징적으로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네 짐승은 곧 네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죠. 바벨론, 메대/페르시아, 헬라, 로마죠. 그런데 그 나라들이 모두 지나가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얻은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세 번이나 영원함을 반복해서 강조할 정도로 영원히 지속되는 나라입니다.
이 영원한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며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여전히 해당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압제 가운데 모든 소망의 끈이 끊긴 상태입니다. 빼앗긴 나라를 다시 찾을 수 있을지 점점 희망이 사라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 주시며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 번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세워진 나라와 그 권력이 아무리 오래 지속된다 한들 반드시 끝나는 날이 온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분의 백성이 힘들고 고통스러워할 때, 딱 한가지를 부탁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주신 언약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붙들고 성실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라는 것이죠.

9. 또 다른 환상
다니엘은 또 다른 환상을 보게 됩니다. .
다니엘 8:3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 가에 두 뿔 가진 숫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다니엘은 환상 중에 두 뿔 가진 숫양 한 마리가 강가에 서 있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런데 두 뿔의 길이가 다릅니다. 긴 뿔이 나중에 난 것으로 가브리엘 천사는 이 장면을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다니엘 8:20
20 네가 본 바 두 뿔 가진 숫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두 뿔을 가진 숫양은 메대 페르시아 제국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두 뿔의 길이가 어떤가요? 길이가 다릅니다. 왜 한쪽 뿔이 더 긴 것일까요? 메대 페르시아 제국의 역사를 보면 메대 제국보다 훗날 세워진 페르시아 제국이 더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결국 페르시아 제국은 메대 제국을 합병하고 메대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한 나라를 이룹니다. 이것을 '나중에 난 뿔이 다른 한 뿔보다 더 길다'라고 묘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숫양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아무도 제어할 상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이어 현저한 뿔이 있는 숫염소가 등장합니다.

다니엘 8:5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숫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현저하다는 뜻은 '뚜렷이 드러나 있다'라는 말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이 숫염소가 헬라 제국을 상징한다고 해석합니다.

다니엘 8:21
털이 많은 숫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말씀처럼 메대 페르시아 제국은 헬라 제국에 의해 무너집니다. 헬라 제국을 상징하는 숫염소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 8:5-7
5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숫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6 그것이 두 뿔 가진 숫양 곧 내가 본 바 강 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7 내가 본즉 그것이 숫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숫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숫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숫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숫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아무도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힘을 지닌 메대 페르시아 제국이 헬라 제국에게 제대로 저항 한 번 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메대 페르시아 제국을 연약한 동물의 상징인 양으로 비유한 이유입니다.
그럼 숫염소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현저한 뿔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보통 성경에서 '뿔'은 권력을 상징하는데 여기서 '현저한 뿔'은 헬라 제국의 황제였던 알렉산더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뿔이 꺾이고 새롭게 네 개의 뿔이 등장합니다.

다니엘 8:8
숫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서양 고대사를 보면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가 죽고 난 뒤 네 나라로 분열 됩니다.
이 과정에서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 시절의 힘과 명성을 잃고 쇠락해 갔습니다.

10 예루살렘의 멸망과 회복

옆면 촬영

이후 시리아와 이란 지역을 차지한 셀레우코스 장군 이후 안티오쿠스 4세가 등장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이 안식일을 철저히 지킨다는 사실을 이용해 안식일에 맞춰 이스라엘 민족의 자존심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침공합니다. 그리고 그 뒤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이스라엘 민족이 끔직이도 싫어하던 돼지를 제물로 바칩니다. 이 이야기가 다니엘서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보세요.

다니엘 8:9-11
9 그 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10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의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11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재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여기서 9절에 영화로운 땅은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10절에 하늘 군대는 이스라엘 민족을 뜻합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그 영화로운 땅에 있는 성전을 허물고 제우스 신상을 가져다 놓은 채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 숭배를 강요합니다. 그것도 모자라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소유하고 낭독하는 것을 금지하죠.
그러나 안티오쿠스 4세도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옆면 촬영 끝

다니엘 8:14
그가 내게 이르되 이천삼백 주야까지니 그 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이천삼백 주야가 지난 뒤 안티오쿠스 4세는 죽음을 맞고,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을 되찾게 됩니다. 여기서 이천삼백주야는 숫자 그대로 2,300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처럼 24시간을 셈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제사를 하루로 칩니다. 그런데 하루에 두 번 제사를 드리니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의 개념이 그들에게는 이틀이 되는 셈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2,300일을 둘로 나눈 1,150일이 바로 이 말씀에서 의미하는 2,300주입압니다. 1,150일은 3년하고도 50일이 더 되는데요.. 역사 속에서도 안티오쿠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을 침공한 뒤,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을 되찾은 기간이 3년 여가 걸렸다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8:27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다니엘은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습니다. 여기서 놀랐다는 것은 인생의 한 획이 그어질 정도로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는 이 환상을 통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자나 국가는 반드시 심판 당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강성한 국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끝이 멸망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잊지 말고 간직하라고 당부하십니다. 인간의 시점으로 보면 다니엘이 본 환상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점으로는 이미 완성된 그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19시대와 같이 아무리 칠흑같은 어둠 속에 던져졌다 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어야 합니다. 약속을 붙드는 인생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붙든 그 약속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완성시키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주권찾기- 다니엘 5강

1. 인트로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주권찾기 다니엘서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다니엘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을 포함하여 2주 남았는데요. 끝까지 힘내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길 소망합니다.

만인 인력의 법칙을 만든 뉴턴을 아시나요? 뉴턴하면 사과과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뉴턴은 과학자이기도 했지만 신학자였습니다. 오늘 배우게 될 다니엘 9장 24절부터 27절의 말씀을 일컬어 '그리스도 신앙의 주춧돌이 된다'고 표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이 구속의 사건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9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 예레미야서에 나타난 구원의 약속

1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2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 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칠십 년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위의 말씀에서 '책'은 예레미야서를 의미합니다. 다니엘은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늘 두 가지를 인생의 기둥으로 붙들고 있었는데요. 바로 기도와 말씀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빼놓고서는 다니엘의 인생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는 늘 말씀을 쫓아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오늘도 늘 하던 대로 성경을 읽다가 예레미야가 남긴 예언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읽었던 대목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5:12-13
12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칠십 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13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 다니엘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이 70년이면 끝난다는 사실과 함께 바벨론의 멸망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지금 다니엘이 깨달은 것입니다.

이에 다니엘은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쓴 채로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때를 B.C 605년경으로 추정하는데요. 하나님은 이로부터 정확히 70년 후 이스라엘의 해방을 약속하셨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상황을 보니 자신이 포로로 끌려온지 68년의 시간이 났습니다.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점이 불과 1~2년을 남지 않은 것이죠.

3.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다니엘

그런데 그는 왜 비장한 모습으로 금식하며 기도하기로 작정한 것일까요?

예레미야서 34장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년 동안 땅을 갈고 7년이 되는 해에는 경작하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땅을 쉬게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노예도 풀어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바로 탐욕 때문입니다.
그들은 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땅을 쉬게 하지도, 노예를 풀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풀어 줬던 종들을 다시 잡아다가 노역을 시키는 악행을 저지르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안식년을 철저하게 어긴 것이지요. 좀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욕심이 그들의 삶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로 살게 하십니다. 그러는 동안 이스라엘 땅은 경작할 사람이 없어 자동적으로 안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겪는 눈물의 역사가 다름 아닌 조상들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곧 포로 생활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쓴 채로 금식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옆면-3 시작

다니엘이 입은 베옷은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입은 옷으로 땀 흘리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입었습니다. 당시 예배를 드릴 때 땀 흘리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구원과 관한 행동이었는데, 구원의 문제에 관해서 인간적인 어떤 노력도 개입되어서는 안된다는 상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다니엘이 베옷을 입은 것은 하나님의 용서 밖에는 이 문제를 풀 수 없다는 선포입니다.
또한 재는 가장 깊은 절망의 상태를 상징합니다.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됐다"라는 상황처럼 절망적인 상황이 어디 있을까요? 지금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며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들이 살았던 예루살렘 또한 황폐한 땅이 되었습니다. 마치 다 타고 남은 재처럼 말이죠.

다니엘은 자신과 이스라엘 민족을 재처럼 여기며 금식을 시작합니다. 사람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음식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얼마나 양질의 음식을 섭취하느냐에 따라서 힘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을 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금식은 외부로부터 섭취하는 음식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겠다는 가장 적극적인 행위가 바로 금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다니엘의 행동은 곧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용서밖에는 답이 없습니다"라는 처절한 회개와 간구인 것이죠.

옆면-3 끝

지금 겪는 고난은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는 불순종하지 않도록 고난을 통해 연단받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조상들의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우리'를 강조합니다.

다니엘 9:5
5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조상들로부터 이어지는 이 죄악의 사슬을 끊지 못한다면 해방되더라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

아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구체적으로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민족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린 것이죠. 이와 같은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들의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4. 일흔 이레(490년)의 비밀

이때 가브리엘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말을 전합니다.

다니엘 9:23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에게 명령을 내리신 것이 언제죠? 다니엘이 기도하던 중인가요? 아닙니다. 기도를 시작할 즈음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벌써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려고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기도 내용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비밀이죠.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다니엘 9:24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일흔 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여기서 '일흔 이레'는 70년(일흔)이 일곱 번(이레) 지나간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총 490년의 시간을 뜻하죠. 그리고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은 각각 이스라엘 민족과 예루살렘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예루살렘을 위해 정하신 490년이라는 기간이 자니면 이 땅에 영원한 의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에는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세 부류만이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왕과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입니다. 이 세가지 직책을 모두 소요한 분이 누구신가요? 바로 예수그리스도이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뜻하는 히브리어 '메시아'와 또 헬라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9:25-26
25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 이레와 예순두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26 예순두 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이 이번에는 '일흔 이레'를 세 등분으로 나눕니다. 일곱 이레와 예순두 이레, 그리고 한 이레입니다. 일곱 이레는 49년, 예순두 이레는 434년입니다. 490년에서 이 둘을 빼면 이레, 곧 7년이 남습니다. 다시 말해서 490년은 49년, 434년, 7년으로 세 등분된다는 것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490년을 이렇게 세 등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각 기간들이 갖는 시대적 의미와 영적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 9:25
25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 이레와 예순두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말씀에 보면 왕이 일어난다 표현합니다. 여기서 왕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요,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 이레와 예순두 이레가 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483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옆면-4 시작
그런데 예언의 시작 시점은 언제인가요? 느헤미야서 2장에 그 시점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2:1-2
1 아닥사스다 왕 제이십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2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 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여기서 '니산월'은 바벨론식 표기로 히브리어는 '아빕월'이라고 합니다.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을 말하는데요, 이때 느헤미야 역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니엘처럼 포로 생활 중에 관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왕을 섬기는 신하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왕에게 들키고 맙니다. 왕이 그에게 근심하는 이유를 묻습니다. 왕을 보필하는 관리로서 왕에게 근심하는 얼굴을 보인 그이 행동은 당시 법으로 처형받을 수 있는 중죄에 해당하기에 느헤미야는 두려워하며 입을 엽니다.
자신의 고향이 페허가 됐는데 어찌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는냐 말합니다. 결국 아닥사스다 왕은 신뢰하는 신하,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기로 결단합니다. 성을 복원하고 다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가 483년을 헤아리는 시작 지점입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허락을 받고 일부 관리와 함께 고향 땅으로 돌아가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 성이 49년 만에 완성됩니다. 490년의 처음 부분인 일곱 이레가 끝난 것이죠. 그리고 그 뒤, 선지자 에스라가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운동을 벌이며 몰락한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앞장 섭니다.
옆면-4 끝
다시 다니엘서로 돌아갑니다.

다니엘 9:25절 첫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바로 느헤미야서에 기록된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했던 "너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는 그 명령인 것입니다. 그렇게 49년 만에 성전이 재건되고, 그 후 434년이 지난 뒤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니엘서는 다음과 같이 예언합니다.

다니엘 9:26
예순두 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다"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예언하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속의 그림을 다니엘서에 비밀스럽게 숨겨 놓으신 것이죠.
일곱 이레와 예순두 이레에 대한 의문이 벗겨졌으니 이제 한 이레, 곧 7년에 대한 해석만 남았습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나머지 한 이레는 7년이라는 시간이 아닌 종말이 완성되기까지의 시간을 뜻하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시간까지를 우리는 종말의 시간이라 부릅니다. 한 이레는 이 마지막 때를 상징하는 숫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곱 이레와 예순두이레 곧 483년이 지난 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듯 일흔 이레에 이르는 어느 날 종말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5. 기도의 사명을 맡은 다니엘
다니엘 10장부터 12장까지는 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들을 이야기하는데 10장은 11,12장에 대한 서론부분입니다. 다니엘 10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다니엘 10:1
바사 왕 고레스 제삼 년에

고레스 왕이 집권한 지 3년이 되는 해에는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두 차례 귀환 정책을 통해 대부분 고향으로 돌아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여전히 바벨론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의 나이가 이미 여든이 훌쩍 넘은 시기였습니다. 그는 '거의 한평생을 타국에서 살았는데 폐허가 된 본국으로 돌아간들 뭐하겠느냐. 그냥 이대로 살다 죽자'라는 마음으로 남아 있었을까요? 아니면 세상적인 명예와 부귀를 내려놓기 싫어서 머물러 있었을까요? 둘 다 아닙니다. 다니엘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바벨론에 머물러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을 받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 방해로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됩니다. 외부적인 방해도 있었지만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막상 들뜬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와 무너진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다 보니 예기치 않은 일들이 자꾸 벌어집니다. 자녀를 돌보고 가정을 꾸릴 돈도 필요해집니다. 막연히 성전 재건에만 힘을 쓸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서서히 지치기 시작합니다. '좀 쉬었다 하자', '일단 가정부터 꾸리고 성전을 재건해도 늦지 않다'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되는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황폐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선지자가 있습니다. 바로 학개입니다. '학개'라는 이름은 '성도들의 마음에 불을 지른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는 패배감과 실망감에 젖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심령에 불을 지릅니다.

학개 1:4-5
4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 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5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선지자 학개는 무너진 성전을 놔두고 어찌 자신의 집을 돌보려 하느냐며 이스라엘 백성을 질책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힘을 합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자고 격려합니다. 위기의 순간에는 학개와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말씀에 붙들린 선지자가 필요한 것이죠.
선지자 학개 이후 하나님은 또 한사람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선지자 에스라입니다. 그는 말씀을 차근차근 깊이 있고 조리 있게 가르치는 학자였습니다. 그는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성벽을 재건해야 하는지, 왜 이대로 주저 앉으면 안되는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에 이어 실제적으로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재건할 행정가 느헤미야를 보내셨습니다. 느헤미야서를 읽다보면 수많은 조직이 눈에 띄는데 느헤미야의 행정가다운 면모를 엿볼 수 있습니다. 각각 분명하게 역할을 나누고, 그 역할에 맞게 일을 배분하여 예루살렘을 재건하게 한 것입니다.
선지자 학개가 절망감에 젖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성전 재건을 향한 불을 붙였다면, 선지자 에스라는 조리 있게 왜 성전을 재건해야 하는지 그 뿌리를 놓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성전 재건을 진두지휘하며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삶을 재건하는데 박차를 가합니다.

그럼 다니엘은 어떤 역할을 맡았을까요? 기도의 사람, 다니엘은 이방 땅에 외로이 남아 민족의 운명을 놓고 기도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당장 사람들의 눈에는 선지자 학개,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역할이 돋보일 수 있습니다. 주목받는 현장에서 일하기 때문이죠. 반면 다니엘은 가슴 한편에 밀려오는 그리움을 억누른채 이방 땅에 남아 조국의 미래를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그러한 다니엘은 3주 동안이나 슬퍼하며 금식합니다.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루도 아닌 3주동안 금식을 했을까요?
고레스 왕 때 주어진 1차 성전건축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사마리아 사람들에 의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성전을 건축하면 세금을 왕에게 바치지 않을 것이라고 모함하죠. 이에 왕은 법적으로 성전 재건을 중단시킵니다. 이제 공사가 언제 재기될지 모

르는 상황입니다. 이로인해 다니엘은 마음이 답답하여 금식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6. 힛데겔에서 보여진 환상

그 와중에 다니엘은 힛데겔이라는 큰 강가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 10:4
첫째 달 이십사일에 내가 힛데겔이라 하는 큰 강 가에 있었는데

힛데겔 강은 페르시아만에서 약 100마일 북쪽으로 유프라테스 강과 만나는 지점으로 티그리스 강을 말합니다. 이 환상은 전쟁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전쟁이 어떻게 펼쳐질지 말해줍니다.

다니엘 10:5-6
5 그 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 띠를 띠었더라
6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한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가요? 순결과 거룩성을 뜻하는 흰색상의 세마포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다고 합니다. 우바스는 지역이름인데요, 금이 많이 나는 지역이었습니다. 우바스에서 나오는 금을 뜻하죠. 허리에 띠는 왕 또는 재판관의 신분을 가졌음을 상징합니다. 얼굴은 인간의 육안으로 쳐다보기 힘들 정도로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다 했습니다. 횃불은 엄정한 심판을 상징합니다. 몸은 황옥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습니다. 황옥은 황금색을 띄는 보석을 말하고 빛난 놋은 강한 능력과 위엄을 강조할 때 쓰는 말입니다. 또한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매우 힘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 내려오셨습니다.
이 환상을 볼 때 다니엘은 아름다운 빛이 뜻하는 윤택한 피부 빛이 썩은 것 같이 피부가 검은 빛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힘이 다 빠지게 되죠. 그의 음성을 듣고 다니엘은 기절하여 얼굴을 땅에 대고 잠이 듭니다.
이때 천사 가브리엘이 등장하여 힘이 없어 쓰러진 다니엘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말하죠.

다니엘 10:12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 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기도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이미 응답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옆면-6 시작
그런데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말해주러 오기까지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다니엘 10:13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이십일 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 주므로

가브리엘은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 가는데 사탄의 군대가 막은 것입니다. 예루살렘 재건을 위하여 바사, 페르시아의 왕의 마음을 감화시키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군대가 먼저 와서 페르시아의 군주의 마음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지요. 인간의 마음을 두고 선악간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사탄의 군대가 와서 전쟁함으로 21일동안 올 수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도와줍니다. 미가엘은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인가?'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의 뜻을 통하여 미가엘의 하늘의 천사들 가운데 강력한 천사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니엘에서는 가브리엘을 도와 하늘의 악한 영을 대적할 힘을 지닌 천사장,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으로 미가엘은 소개됩니다.
옆면-6 끝

다니엘 10:14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에 겪을 내용을 말씀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날은 매데 페르사아 다음 헬라제국과 분열된 4개의 제국시대, 그리고 종말의 때를 모두 말합니다. 오랜 후의 일임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이제 그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천사에게 압도되어 얼굴을 땅에 대고 듣게 됩니다. 환상으로 인해 충격을 받고 맥이 모두 빠지게 됩니다.
다니엘 10:18-19
18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19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은 '가브리엘'천사를 말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을 만져 육체적으로 힘이 나게 할 뿐만 아니라 담대한 마음을 가지도록 합니다.

7. 영적인 전쟁
다니엘 10:20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네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내가 왜 여기에 왔는지 아느냐? 이제 돌아가서 페르시아의 군주와 싸워야하고 그 다음에 헬라의 군주가 올것이라 말합니다.
여기서 페르시아 군주는 실제로 페르시아 왕이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에 영향을 미쳐 하나님

의 뜻을 방해하려는 악한 영, 즉 사탄을 말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왜 페르시아의 군주, 즉 사탄과 왜 싸웠을까요? 그것은 페르시아 제국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하려는 악한 영을 저지시키기 위함입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귀환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페르시아의 통치가 유다백성들에게 우호적인 것만 아니었습니다. 유다 땅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을 적대했고,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과 아닥사스다 왕에게 성전재건 공사를 고소하여 중단시켰습니다. 또한 아하수에로 왕 때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전멸시키려고 하였죠. 사탄은 이 모든 일들을 조정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꺾어버리려 했습니다. 그렇기에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 악한 영들과 싸운 것이죠. 이후에 헬라의 군주, 악한 영이 와서 다시 싸우게 될 것을 말해줍니다.

다니엘 10:21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네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뿐이니라

가브리엘 천사는 자신이 떠나기 전에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알릴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진리의 글은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 가운데 드러내실 계획을 말합니다. 그리고 악한 영들과 싸워 승리하도록 도와줄 자가 미가엘이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를 도와서'라는 말은 강하게 한다는 뜻으로 하늘의 약한 영들과 싸울 때 가브리엘을 강하게 하여 이기도록 할 것임을 보여줍니다.

역사 가운데 늘 영적 전쟁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영적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더럽히고 멸망시키려 합니다. 고레스 왕과 페르시아 군주들의 마음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우리는 늘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기억해야 합니다.

1. 인사 / 11장 인트로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주권찾기 다니엘서 강의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마지막 강의라 생각하니 아쉽기도 합니다.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도 참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강의를 통하여 다니엘 시대에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더불어 강의를 듣고 난 후에 출석체크 꼭 잊지 마세요. 총 6회중 4번이상 출석하셔야 수료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다니엘서 11장은 상세히 나누면 130여가지가 넘는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예언이 너무나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 논란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시하는 사람들을 복음주의라 부르는데요.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다니엘서 11장의 내용은 틀림없이 다니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며, 이 말씀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반면 반대편 학자들은 아무리 정확해도 이렇게 정확할 수는 없다. 이미 이루어진 역사를 보고 마치 하나님이 주신 예언처럼 성경에 슬쩍 넣었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다니엘서 11장에는 역사 속에 실재했던 일들이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매대 페르시아 멸망과 헬라제국의 분열

다니엘 11:1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여기서 '내가'는 천사 가브리엘을 가리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메대 사람 다리오 왕을 도왔다는 것이죠. 실제로 다리오 왕은 메대 출신으로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데 공을 세우며 바벨론 일대의 통치권을 위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천사 가브리엘이 도왔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역사의 실질적인 경영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앞으로 역사 속에서 전쟁이 어떻게 펼쳐질지 알려 주셨습니다.

다니엘 11:2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네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세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의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메대 바사 제국에 네 왕이 일어나는데 마지막 네 번째 왕이 가장 힘이 쎕니다. 그는 바로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어마어마한 부자로, 앞의 세 왕보다 훨씬 더 막강한 권력과 재물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역사 속에서 큰 실수를 합니다. 무려 백만 대군을 소집해서 헬라 제국을 공격한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죠. 그런데 이 백만 군사들을 이끌고 참여한 전투에서 헬라 제국에게 패하고 맙니다. 그 뒤로 메대 바사 제국의 기세가 기울고 헬라 제국이 새로운 강자로 떠오릅니다.

다니엘 11:3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여기서 능력있는 왕은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왕을 의미합니다. 알렉산더 왕이 재위하던 시절, 헬라 제국은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알렉산더가 스무 살에 왕위에 오를 당시 국민 앞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 땅에 인간이 사는 곳이면 그곳이 어디든 전부 점령하겠다"
실제로 그는 계속 영토 확장을 위한 전쟁을 벌였고, 급기야 인도까지 점령하기에 이릅니다. 그런데 인도에서 화살을 맞고 그는 진격을 멈추죠. 만약 알렉산더가 부상당하지 않았더라면 인도를 넘어 중국을 지나 한반도까지 왔을 거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당시 알렉산더의 기세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 뒤 그는 본국으로 돌아왔고, 얼마 뒤 말라리아에 걸려 심한 열병을 앓다 서른셋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가 죽기 전 측근 한 명이 물었습니다. 누구에게 왕권을 넘길 생각입니까? 당시 알렉산더에게는 배다른 두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가 당연히 두 아들 중 한 명에게 왕좌를 넘겨주리라 예상했습니다. 그러는 그는 '제일 힘이 강한 자에게 왕권을 물려줘라'라고 말한 뒤 숨을 거둡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헬라 제국을 분열시키는 근거가 됩니다.
알렉산더의 죽음 뒤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죽고 죽이는 전투가 벌어진 것이죠. 각종 음모와 모략과 암살과 독살이 난무하는 가운데 알렉산더의 두 아들이 가장 먼저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의 아내를 비롯한 알렉산더 왕가가 비운의 죽음을 맞으며 전멸하게 됩니다. 결국 헬라 제국은 네 나라로 나뉘게 되죠. 실질적으로 헬라 제국이 해체 된 것입니다.

3. 남방과 북방의 전쟁

옆면-3 촬영 시작

말씀을 보면 남방과 북방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니엘 11:5-6

5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6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 때에 도와 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여기서 남방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로 애굽지역을 뜻하고, 북방은 셀레우코스 왕조로 시리아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 두 왕조는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세력이 거의 비슷했기 때문에 두 왕조가 역사 속에서 계속 부딪친 것이죠. 그러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들의 공주를 셀레우코스 왕가로 시집 보냅니다. 이 정략결혼으로 인해 얼마간 평화가 유지되는가 싶었는데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공주와 그 자녀들이 멸족되고 버림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다니엘 11:7-9

7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의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8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 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9 북방 왕이 남방 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7절에 보면 '그의 성에 들어갔다'고 되어 있는데 북방 셀레우코스 왕조의 왕궁은 안디옥에 있었습니다. 지도보시면 '이소스'라는 지명 보이시나요? '이소스'지역 바로 밑 부분에 있었습니다. 이 성은 함락이 쉽지 않은 요새였습니다. 하지만 남방 프톨레마이오스 3세는 막강한 전력으로 그 성을 함락시켰습니다. 그리고 은 4만달란트와 보물과 2,500개에 달하는 우상들을 가지고 본국,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이것들은 원래 애굽의 것이었는데 페르시아 시대에 빼앗겼던 것이죠. 그래서 애굽사람들은 프톨레마이오스 3세가 약탈되었던 은과 보물과 우상들을 다시 찾아오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리고 남방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와 북방 셀레우코스 왕조는 서로 평화 조약을 세워 평화롭게 지냅니다. 하지만 이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셀레우코스 2세는 지난날의 수모를 기억하고 되갚고자 평화 조약을 어기고 애굽으로 쳐들어갈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본국, 애굽으로 들어가기 전에 대패하여 본국으로 귀환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북방왕과 남방왕의 대결은 계속 되었습니다.

옆면-3 촬영 끝

다니엘 11:10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 같이 나아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 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이제 그 아들들이 싸우게 됩니다. 북방 셀레우코스 3세와 안티오코스 3세가 남방 프톨레마이오스 4세에 대해 전쟁을 벌입니다. 셀레우코스 3세는 소아시아를 공격했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동생 안티오코스 3세에게 살해당하고 맙니다. 그 후 안티오코스 3세는 36년동안 셀레우코스 왕조를 다스리면서 여러 차례 남방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를 공격하여 많은 땅을 빼앗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그를 '위대한 왕'이라는 별명을 붙여줍니다. 안티오코스 3세는 많은 군대를 이끌고 남방 왕국의 성을 칩니다. 이에 남방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다니엘 11:11

남방 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 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 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 준 바 되리라

남방 왕 프톨레마이오스 4세는 이에 맞서 보병 7만명과 기병 6천명과 코끼리 73마리로 대군을 구성하여 북방을 침공합니다. 이에 북방왕 안티오코스 3세는 보병 6만 2천명과 기병 6천명과 코끼기 102마리로 대군을 구성해 방어합니다. 전쟁은 팔레스틴에 위치한 라피아라는 지역에서 2년동안 진행되었습니다. 11절에 그의 손에 넘겨 준 바 되리라라고 되어 있는데 상대방에게 권한이 넘어간다는 뜻으로 남방 프톨레마이오스 4세의 대승으로 끝이 납니다.

다니엘 11:12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프톨레마이오스 4세는 전쟁에 승리하여 매우 교만해 졌습니다. 교만은 심해져 자신을 신으로 만들려 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전쟁에 승리하여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성전 안을 들어가려 했습니다. 성전 안의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라 생각했죠. 그러나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를 저지하였습니다. 이에 격분한 프톨레마이오스 4세는 유대인들을 노예화 하라는 칙령을 공포했고, 유대교인들을 코끼리로 짓밟아 죽이려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 사로잡은 1만 6천명이나 되는 군사들을 다량으로 학살하지만, 세력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다니엘 11:13
북방 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때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북방 왕 안티오코스 3세는 동방으로 원정을 떠나 인도까지 점령하고 많은 재물을 획득하여 군대를 재정비합니다. 그런데 남방 왕 프톨레마이오스 4세는 그의 부인과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남방은 프톨레마이오스 5세가 왕 위에 오르게 됩니다. 5세의 나이는 겨우 4-7세로 추정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북방왕이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이 때다 싶어 북방왕 안티오코스 3세는 남방을 침공할 계획을 세웁니다.

다니엘 11:14
그 때에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네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그리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남방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를 칩니다. 14절에서 네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폭력을 행하는 자가 일어나 애굽의 속국의 상태에서 벗어나 독립을 이루기 위해 애쓰지만 크나큰 낭패를 당하고 맙니다. 이들은 안티오코스 3세의 침략군에 동참하여 남방 왕조를 침략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일로 남방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보복을 당하게 됩니다. 프톨레마이오스의 장군이었던 스코파스는 유대인들의 반기에 대한 보복으로 응징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다니엘 11:15
이에 북방 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북방 왕 안티오코스 3세는 군대를 이끌고 남방 프톨레마이오스의 장군 스코파스의 군을 격파하며 점점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한편 스코파스 장군은 시돈 성으로 피하게 됩니다. 당시 시돈 성읍은 매우 견고한 철옹성으로 불리어졌습니다. 이러한 시돈 성을 함락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안티오코스 3세는 성벽 주위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흙을 퍼와 토성을 쌓고 공격합니다. 이에 결국 시돈성은 함락됩니다. 북방 셀레우코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3세는 요새 기지인 가자까지 점령함으로 팔레스틴 땅 전체의 주인이 됩니다.

다니엘 11:17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안티오쿠스 3세는 남방 프톨레마이오스 왕국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외교전략으로 그의 딸

을 프톨레마이오스 5세와 결혼을 시킵니다. 안티오쿠스 3세는 자신의 딸을 어린 왕에게 줌으로 딸을 통해 프톨레마이오스 5세를 조정하려 한 것이죠. 그런데 그 딸은 프톨레마이오스 5세와 결혼하자마자 어린 남편에 대한 동정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에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고 남방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를 굳게 지지 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꺾고 맙니다. 딸은 프톨레마이오스 5세 사이에서 프톨레마이오스 6세를 낳았는데요, 프톨레마이오스 5세가 죽자 프톨레마이오스 6세를 왕으로 세우고 자신은 뒤에서 섭정하였습니다. 애굽 왕실 역사에서 최초 여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딸의 이름은 클레오파트라 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클레오파트라는 애굽의 최후의 여왕으로 클레오파트라 7세 필로파토르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클레오파트라는 동명이인으로 클레오파트라 1세 쉬라입니다.

다니엘 11:18-19
18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19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북방 안티오쿠스 3세가 남방 프톨레마이오스 왕국의 침략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에 지중해 쪽으로 진출하여 여러 나라를 점령합니다. 그런데 로마의 한 장군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한 장군은 로마의 스키피오 장군인데요. 안티오쿠스 3세의 7만의 군사와 스키피오 장군의 3만의 군사가 싸워 스키피오 장군이 승리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마그네시아 전투입니다. 로마의 한 장군에 의해 싸움의 주도권을 빼앗기게 되고 북방 안티오쿠스 3세는 본국으로 돌오게 됩니다. 이 싸움의 패배로 로마에 많은 조공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이에 백성들의 불만이 많아져 안티오쿠스 3세는 폭동 중에 의해 살해되고 맙니다.

4. 예루살렘 침략
다니엘 11:20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 되어 망할 것이요

안티오쿠스 3세는 살해되고 그의 왕위를 아들인 셀레우코스 4세가 이어 받습니다. 그는 12년간 셀레우코스 왕국을 통치하면서 매년 로마에 일천 달란트의 금을 조공으로 바쳐야 했습니다. 통치기간 내내 조세의 부담을 안았죠. 그래서 세금을 거두는 조세관을 의미하는 압제자를 보내어 아름다운 곳, 즉 예루살렘 성전으로 보냅니다. 조세관은 성전의 금고를 탈취하기 위해 호위병들을 이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를 막으셨습니다. 황금 갑옷으로 무장한 기사를 태운 말이 조세관을 받아쳤고 호위병들은 두 천사에게 채찍에 맞게 됩니다. 조세관은 거의 죽을 지경이었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나고 본국으로 돌아가 절대 예루살렘을 건들면 안된다고 말합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전의 금고를 탈취해 오라는 셀레우코스 4세와 부딪히게 되고 고심 끝에 셀레우코스 4세 왕을 독살해 버립니다.
옆면-4 촬영 시작
다니엘 11:21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왕 위를 이을 자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입니다. 에피파네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였고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과 돼지머리를 둠으로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높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죠.

다니엘 11:22-23
22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23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북방의 안티오쿠스 4세와 남방의 프톨레마이오스 6세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남방 왕은 군사가 만았지만 북방 왕에게 패하고 맙니다. 이에 남방 프톨레마이오스 6세는 포로로 끌려갑니다. 한편 그의 동생 프톨레마이오스 7세가 왕이 됩니다. 이에 프톨레마이오스 6세는 왕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교활한 북방의 안티오쿠스 4세는 프톨레마이오스 6세와 조약을 맺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6세가 다시 왕위를 차지하는 조건으로 안티오쿠스 4세에게 충성을 서약하고 동맹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프톨레마이오스 6세는 본국으로 돌아가자 동생인 7세와 동맹을 맺고 안티오쿠스 4세와 싸우기 위해 대규모의 군대를 일으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이 안티오쿠스 4세에게 빠르게 전해집니다. 먼저 침공을 당하기 전에 그들을 쳐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군대를 일으켜 남방 왕국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난관을 만나게 됩니다. 로마에서 소식을 듣고 안티오쿠스 4세의 군대를 막습니다. 결국 안티오쿠스 4세는 자신의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가는 길에 치욕을 억누르지 못하고 예루살렘에 들려 분풀이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단에 제우스 신상을 놓아두고 돼지를 들여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옆면-4 촬영 끝

5. 하나님의 타이밍

다니엘 11:24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략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 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이는 북방 안티오쿠스 4세가 남방 왕국을 침략하여 많은 땅을 빼앗을 것과 관련된 예언입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왕국이 평안할 때 큰 어려움을 들이지 않고 안티오쿠스 4세는 애굽과 애굽 주변에 있는 기름진 곳까지 점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라는 말씀에 주목해 보세요. 아무리 안티오쿠스 4세가 자신의 막강한 권력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선을 넘기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후에도 여러 전쟁이 있습니다. 나중에 셀레우코스 왕조가 있던 시리아 지역은 로마에게 정복당하게 됩니다. 이후부터 로마와 애굽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나라가 그 사이에 끼어서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다니엘 11장은 이처럼 서로 물고 뜯는 가운데 한 나라가 쇠하고 또 다른 나라가 역사 속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

에게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일점일획의 오차도 없이 역사 속에서 정확히 실현되었죠.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심을 인식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롯은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방황하다 둥지를 튼 곳이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자신이 힘겹게 쌓아온 모든 것이 활활타는 광경을 바라보지도 못하며 도망치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자신의 시간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시간만 급하죠. 하지만 우리의 처음과 끝을 아시는 하나님의 시간을 존중하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전체 그림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타이밍에 주목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 당장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해도, 좀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정확한 때를 잡아놓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를 보세요.

다니엘 11:45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 줄 자가 없으리라

사탄의 세력은 언젠가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그를 도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반드시 심판의 날이 올 것입니다. 그렇게 사탄의 세력은 망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구속함을 입고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거주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6. 보좌 앞의 책들과 다른 책

다니엘서의 마지막장인 12장에서는 매우 엄숙하고 장엄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다니엘 12:1
그 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 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 때에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니엘에게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큰 환난을 예고하십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12장 1절 후반부에 보면 그때에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책은 어떤 책일까요? 다니엘서의 신약판이라불리는 요한계시록에 그 힌트가 숨겨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12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보좌 앞에 책들과 또 다른 책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 두 책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책입니다. 단수로 쓰인 책은 말씀에 기록된 생명책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이 예수님에게 뿌리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위에 인생의 기초를 놓은 사람은 인생을 잘 지은 사람입니다. 그 인생은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럼 단수형으로 쓰인 책이 생명책을 말한다면 복수형으로 쓰인 책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니엘 7:9-10
9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10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이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요한계시록에도 동일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책들은 곧 심판을 베푸는 책을 의미합니다. 생명책과 반대되는 심판의 책에는 예수님에게 기초를 두지 않은 수많은 삶이 적나라하게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예수님에게 뿌리박힌 삶이기에 심판의 책이 아닌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7. 힛데겔 강가의 환상 풀이
다니엘 12:2-3
2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3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 12장은 이처럼 심판 날에 벌어질 풍경을 궁극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가 묵시문학으로 불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있는 자'는 마태복음 7장의 말씀처럼 예수님에게 기초를 둔 인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지혜의 사람은 궁창의 빛처럼 빛나고 많은 사람을 예수님에게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처럼 영원토록 빛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종말론적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요청하시는 사명입니다. 의와 생명이 되는 오직 한 길 예수님에게로 한 영혼을 인도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다니엘 12:6
6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이제 다니엘은 10장에 나왔던 힛데겔 강가의 환상을 이야기 합니다. 그는 환난에 관한 환상을 보던 중에 일의 끝이 언제인지 묻습니다. 예수님도 그때와 기한은 알지 못한다고 하시며 그것은 오직 아버지의 권한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다니엘은 사건 자체에 대해 묻지 않고 사건이 끝나는 시점을 물었을까요?

그것이 우리 모두의 공통 관심사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를 말할 때, 항상 우리는 그때와 기한에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오늘이라는 현실을 방치하게 됩니다.
곧 주님이 오신다는데 이게 다 무슨소용이야? 흔히 이단들이 자주 주장하죠.
곧 종말의 날이 오는데 열심히 일은 해서 뭐해! 구지 잘 살악갈 필요 없자나
라고 이야기하며 일상을 포기하고 주님만을 기다리는 겁니다. 아예 가족과 소식을 끊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주님을 기다리는 잘못된 신앙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와 기한에 대해 신경쓰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실제로 내일 마지막 날이 온다해도 오늘 한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 말을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 12:9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여기서 갈지어다를 한글성경으로 보면 단순히 가라는 말처럼 들리는데 원어를 잘 살펴보면, 언젠가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면서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할 삶의 길로 거침없이 달려가라는 의미입니다. 오늘이라는 현실을 놓치지 말고 열심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다니엘 12:7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 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 때 두 때 반 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앞서 살펴본대로 여기서 때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1년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한 때 두 때 반 때를 계산해 보면 3년 6개월이 되었죠. 3년 6개월이라는 기간은 어둠의 권세가 자신의 힘을 일시적으로 과시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입니다. 이때 사탄은 마치 승리자가 된 것처럼 행세합니다. 우리 안에 갇혀 으르렁거리는 사자와 같은 모습니다.

8. 환난의 때에
다니엘 12:10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우리에게 환난이 필요한 이유는 환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기 때문입니다. 연단의 시간은 우리를 정결케 하죠. 이 환난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 내게 합니다. 평안하고 안전할 때는 참과 거짓이 잘 분별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집 안에 불이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장 먼저 무엇을 들고 나오시겠습니까? 저는 제 딸과 아내를 데려올 것 가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것이 지금 우리가 진짜 보물로 여기는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10절을 보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폭풍우를 통과하며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지를 깨닫

게 됩니다. 세상 속에서 수많은 아픔과 상처를 겪어 봐야 주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을 주시는지 참 신랑이 되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의 신부로 정결하게 단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12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다니엘서 1장부터 12장까지 수많은 것들을 배웠는데 가장 기억남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것 하나만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바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강한 나라라 하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언젠가는 멸망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약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언젠간 회복시키시고 영원한 나라가 되게 하십니다. 코로나 19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신가? 의문이 들수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니엘처럼 지금 현실에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고 다니엘서를 들여다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주권이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모두 함께 힘내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